



2

조선체육회 출범과 육상경기대회의 확립



1

조선체육회 땀을 올리다

1920년 6월 16일 오후 6시, 경성(서울) 인사동 명월관 지점 별유천지. 47명에 이르는 조선의 유력인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들이 유흥음식점에 모인 것은 단지 사업상 모임이나 사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⁰⁰¹

이날의 모임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바로 조선인의 체육단체 결성을 위해서였다. 이 무렵, 조선의 국권을 빼앗은 일제가 무단통치에 나서 조선인의 체육 활동은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일본인들은 앞선 해인 1919년 2월 18일 일본인 중심의 조선체육협회를 만들어 이 땅의 체육계를 좌지우지할 태세였다. 또한 3·1운동 이후 민족 자주 독립 의식이 고취되면서 조직적인 체육단체 결성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이미 제기된 터였다.

참석자들은 1920년 6월 16일 조선체육회 발기인 대회를 열어 10여 명의 창립

위원을 뽑고 취지서와 규칙서를 제정했다. 이후 6월 28일 조선체육회 창립위원회 모임을 열었다. 그리고 달을 넘긴 7월 13일 저녁 8시, 인사동 중앙예배당에서 70여 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조선체육회가 창립됐다. 이 조선체육회가 오늘날 대한체육회다.

대한체육회의 전신 조선체육회 창립

당초 발기인은 96명이었지만 지방 인사 20여 명은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창립 발기인 가운데 운동선수 출신은 몇 명 되지 않았다. 당대의 논객이던 장덕수(동아일보 주필), 김성수(동아일보 창간인·부통령), 백낙준(연희전문 교수·전 문교부 장관)을 주축으로 법률가, 의사, 지방 유지 등이 발기인으로 합류했다. 백낙준은 조선체육회의 성격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1919년에 3·1독립운동이 일어났으나, 그 만세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요구가 충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민족의 저력을 키우기 위해 조선체육회를 창립했다. 조선체육회는 조선교육회, 조선어학회, 물산장려회와 같이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주권을 행사하던 민족의 기관이다. 조선체육회는 체육을 통한 항일운동이었던 것이다.⁰⁰²

조선체육회 초대 회장에는 당시 재계 중진이던 동양물산의 장두현 사장이 뽑혔다. 조선체육회는 창립 당시 사무실도 없이 음식점 등을 전전하며 회의를 열

⁰⁰¹ 고두현, 2008, p43; 정희준, 스포츠코리아 판타지, 개마고원, 2009년, p32 등으로 구성.

⁰⁰² 고두현, 2008, p44 인용.



조선체육회 창립의 의미를 소개한 동아일보 기사. 1920년 7월 16일자.

었다. 그러다 1년 뒤 보성전문학교 교장이던 고원훈이 회장이 되면서 보성전문에 사무실을 꾸릴 수 있었다.

당초 조선체육회가 출범하기에 앞서 도쿄 유학생 이중국과 고려야구구락부에 참가하던 광화문의 광신양화점 주인 이원용이 중심이 돼 조선을 대표할 운동단체인 고려구락부의 결성을 추진했다. 이런 움직임에 동아일보 창간 당시부터 기자로 활약한 변봉현이 가세해 각계의 공감을 얻어 조선체육회 결성이 탄력을 받았다.

변봉현은 평파(平波)라는 필명으로 동아일보에 '체육기관의 필요를 논함'이라는 사설을 통해 고려구락부 창립 움직임에 대해 사회 유명인사의 협조를 촉구했다.

……吾人(오인)은 이에 將來(장래)의 運動系(운동계)를 爲(위)하야 機關(기관)을 設立(설립)함이 自今(지금)의 急務(급무)요 要務(요무)니 理論(이론)보다 實際(실제)로 具體的(구체적)으로 實行(실행)하야 하 겠다.(동아일보 1920년 4월 10일자 사설)

변봉현은 4월 12, 13일자 동아일보에서도 사설을 통해 체육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의 과제인 국권을 되찾기 위해 우선 국민의 체력이 강인해야 하



◀ 조선체육회 초대 회장을 지낸 동양물산 장두현 사장.
▶ 조선체육회 제2대 회장을 지낸 고원훈 보성전문학교 교장.

며 이를 향상시키려면 체육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사실 3·1운동 이후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이 문화정치로 변하면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용돼 각 지역에서 청년회 등의 단체가 결성되고 체육 활동도 활성화됐다.

1920~1930년대 90여 개 체육단체 결성

체육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체육기관을 결성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었다. 이처럼 체육기관 설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전국 각지에 90여 개의 체육단체가 연이어 결성됐다. 조선체육회는 결국 동아일보의 적극적인 후원과 사회적인 공감대가 커져 고려구락부보다 훨씬 광범한 조직으로 창립을 보게 됐다. 따라서 조선체육회는 고려구락부를 토대로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⁰⁰³

⁰⁰³ 이후, 일제시대의 근대 체육 성립과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p108.

구한말 체육단체와 일본인 중심 조선체육협회의 출현

대한체육구락부는 구한말 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체육단체다. 이 단체는 1906년 3월 11일 한성 계동의 김기정 집에서 유지, 신사 30여 명을 중심으로 조직됐다.

애초 대한체육구락부는 경구蹴球구락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그러다 창립 20일 뒤인 3월 30일 대한체육구락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 단체의 창립 목적은 체력의 양성이 국가 성망을 좌우하는 관건임을 파악하고 유희 등과 같은 체육 활동을 통해 청년과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조선을 근대적 문명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⁰⁰⁴

대한체육구락부의 활동은 축구 경기 개최와 다른 단체들과의 친선 경기가 중심을 이뤘다. 또한 운동가를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다. 1907년 10월 15일에는 노백린 등이 체육의 일반화와 학교 체육에서 병식兵式 체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질적으로 보급 향상시키기 위해 대한국민체육회를 발족시켰다.

뒤이어 회동구락부, 대동체육부 등이 속속 결성됐다. 1910년 2월에는 사립 중등학교 학생인 최성희, 성열, 신완식 등이 청강체육부를 조직했다. 축구 중심의 이 단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 체육부로 기록되고 있다.⁰⁰⁵

이런 가운데 1919년 2월 18일 조선 거주 일본인들의 체육단체인 조선체육협회가 출현했다. 창립 당시는 남대문 부근 일본계 조선신문사에 사무실을 두고 순수 민간단체로 출발했다. 그런데 1919년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하려는 시점이었다. 또한 이미 두 차례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 만큼 국력에 맞는 올림픽 강국의 이미지가 아쉬운 상황이었다.

민간단체로 출범한 조선체육협회는 이후 총독부 학무국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관 주도의 단체로 변질됐다. 따라서 협회의 본부는 총독부 학무국에 두고 체육과 직원들이 사무를 맡았다. 말하자면 일본체육협회의 서울지부였던 셈이다.

이렇게 등장한 조선체육회는 창립 취지서에서 “조선 사회의 개개의 운동단체를 후원하고 장려하여 조선 인민의 생명을 원숙 창달케 하는 사회적 통일적 기관으로 결성됐다.”고 밝혔다.(신동아 1934년 3월호 전 조선체육단체 순례)

그러나 임원과 조직을 갖춘 조선체육회는 조선 전 지역에 조직을 갖는 전국적인 체육단체는 아니었다. 아직 지방에 지부를 갖지 않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체육단체였다. 조선체육회의 제5대 회장(위원장) 이동익은 이 같은 체육회의 약점을 극복하게 위해 전국 지부 결성을 추진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 지부의 결성이 체육단체의 규모 확장뿐만 아닌 조선 민족의 대표적 체육기관을 사회적 성원 아래 결성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우리 體育會(체육회)는 朝鮮(조선)의 것입니다. 그런 적 經驗(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技術(기술)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大同團結(대동단결)해야 朝鮮的(조선적)으로 나타나게 하여서 社會的(사회적)으로 만드려 보자는 것이 오즉 하나인 우리의 바람이외다. 咸興(함흥)에는 벌써 支部(지부)를 두었습니다만 各地方支部(각지방지부)를 두어 全朝鮮的(전조선적)으로 튼튼한 團體(단체)를 일우어 보고자 합니다.”(동아일보 1925년 1월 1일자, 지방지부도 설치, 조선체육회 위원장 이동익)

그러나 그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 체육인의 성원 부족과 일제의 방해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조선체육회에는 산하 단체는 아니었지만 협조 조직체 또는 회원 단체로 고려육상경기회, 경성육상경기연맹, 조선야구심판협회, 조선

⁰⁰⁴ 황성신문, 1906년 3월 30일자.

⁰⁰⁵ 김재우 논문, 2009, p65.

축구심판협회, 조선정구협회 등의 단체가 있어 조선체육회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체육을 대표할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무렵 창간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지원에 따라 전국 규모의 각종 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1924년 6월 조선체육회가 주최한 전조선육상경기대회(원동 휘문고등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열림)를 후원한 동아일보는 ‘세계적으로 웅비(雄飛)하려면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라’는 제목의 기사로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조선 청년이 다른 나라 청년에 비하여 현저히 체질이 섬약하고 따라서 원기가 부족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일찍이 체육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조선에서 체육이라는 말을 식자 간에 하게 되기도 최근 수십 년간의 일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이 있으면서도 뜻과 같이 하지 못하던 일도 많았다. 회고컨대 다섯 해 전에 쇠퇴한 조선체육계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취지 아래에 조선체육회라는 것이 생기어 해마다 축구, 정구, 야구 여러 운동계에 공헌이 많음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어니와 이번에 열리는 육상경기대회는 다른 운동회와 같이 어떠한 한두 가지 부분적의 운동이 아니라 실로 모든 운동을 모아 대성(大成)하여 놓은 조직적 운동이라. 더욱이 이후부터는 조선인의 운동계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요, 극동올림픽이니 세계올림픽이니 하는 중대한 회합을 앞에 두고 있는지라 장래 세계 운동회에 참가하여 영광의 월계관을 얻으려는 웅장한 선수는 미리부터 이 회에 참가하여 재주를 단련하라! 용기를 단련하라! 006

이를 통해서 조선체육회의 출범이 단순한 체육 활동이 아니라 세계무대에 조

선의 존재를 알리고자 한 큰 뜻을 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부터 조선체육회와 일본 단체인 조선체육협회는 경쟁적으로 각종 대회를 주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분위기는 신문 보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민족계 신문들은 육상경기 결과를 발표할 때 항상 우리 선수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보도했고 기록을 발표할 때도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분해서 민족 간 대결과 경쟁심을 유발했다. 또한 일본인이 주축이 돼 만든 조선체육협회 관련 기사에는 반드시 ‘일본인 측’이라는 것을 밝혀 우리 힘으로 만든 조선체육회와 별개임을 강조했다.

동아일보 1925년 1월 1일자에 실린 ‘과거 일 년의 운동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1924년 한 해 동안 조선 운동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보도하는 한편, 각 지방에서 주최한 운동회와 일본계 신문사와 단체가 주최한 대회에 대해 “전 조선적이 아니고 혹은 조선인을 본위로 하지 아니한 것은 기억에도 별로 남지 않았거니와 별로 소개할 필요도 없다하여 그만둔다”라고 할 만큼 평가절하를 했다.

이 무렵 “무질서한 우리의 운동계에서 하루 바삐 연락과 통일을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1925년 1년 동안 전 조선 대회만 34회(경성에서 17회, 기타 지방에서 17회), 지방대회는 200여 회가 열렸으나 각 대회 주최 단체 간에 연락과 통일이 없이 나뉘대로 대회를 치르다보니 개최회수조차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경기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비교가 불가능했다. 더욱이 ‘전 조선’을 내건 경기가 워낙 많이 열려 도대체 어느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진짜 조선 최고의 실력자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또 정구, 야구, 축구 등 일부 인기 종목에만 경기가 집중되고, 명칭만 전국 대회지

006 동아일보, 1925년 6월 3일자.

전국 규모의 육상경기대회 열리다

참가 단체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운동 정신보다는 오락적 요소가 강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1920년대는 본격적인 육상경기대회가 시작되는 한편, 기존 운동회 성격의 대회도 여전히 큰 인기를 끌며 개최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민족계 언론들은 조선체육회 주최의 각종 운동경기대회에서 우승한 단체와 개인을 중심으로 한 해 운동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선체육회가 앞장서서 각 지방과 연락 통일을 기하기로 하면서 점차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간다. 이로써 조선체육회는 온 국민의 성원을 받으며 일본 측 체육단체인 조선체육협회를 능가하는 민족적 체육단체로 성장한다.

1912년 5월 10일 용산 청파정에서 열린 연합대운동회에서 불상사로 중단됐던 운동회가 다시 열리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1920년 5월 2일 오전 10시, 경복궁 춘당대 마당에서 경성시민대운동회가 열렸다. 경성상공업자조합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 운동회에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중국인들까지 참가했다. 운동장에는 십수만 명의 구경꾼이 몰려들어 당시 신문에 '사람사태'가 났다고 보도될 정도였다.

경기는 마라톤과 사이클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광화문 밖에서는 120명의 선수들이 경성일주마라톤(실제로는 약 7마일의 로드 레이스)을 했고, 경복궁 안에서는 70명의 선수들이 사이클 경기를 펼쳤다. 경성 시내 일주 레이스는 서울 종로에서 스타트해 남산공원을 올랐다가 서대문으로 돌아와서 광화문 오른편 첫 번째 해태상 옆으로 들어오는 약 7마일 코스였다. 이 경기에서 24세의 최원기 선수가 36분 54초로 우승해 부상으로 금시계를 받았다. 그의 직업은 인력거꾼이었다. 2등 김출, 3등 김갑성도 인력거꾼이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운동장을 40바퀴 도는 사이클 경기에서 사단이 났다. 8명



1920년 5월 2일 경성시민대운동회 모습. 다음날 동아일보에 게재된 사진으로 몰려든 시민들 뒤로 경복궁 경회루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이 출발했으나 도중에 다 넘어지고 ‘조선에서 자전거 잘 타기로 유명한’ 엄복동 선수와 일본 선수 한 사람만 남았다. 30여 바퀴를 돌았을 때 이미 1등은 엄복동 선수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그 순간 심판석에서 경기를 중단시켰다. 이에 격분한 엄 선수는 “이는 꼭 협잡으로 내게 1등을 주지 않기 위한 교활한 수단”이라고 부르짖으며 본부석으로 달려가 “이까짓 우승기를 두었다 무엇하느냐.” 하며 우승기를 꺾어버렸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일본인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엄 선수를 마구 때려 목에 피가 흘렀고 이를 보고 분개한 조선인들이 몰려들어 “엄복동이 맞아 죽는다.”고 외치며 돌을 던졌다.⁰⁰⁷ 비록 아수라장이 되긴 했지만 이 대회 이후 각 체육단체들이 주최하고 지역 상공인들과 언론사가 후원하는 시민대운동회가 잇따라 열렸다.

⁰⁰⁷ 동아일보, 1920년 5월 3일자.



1930년대 양정고보 체육대회 광경. 당시는 전국 규모의 육상경기대회가 가장 활발히 열리던 시기다.

인력거꾼 안 돼! 참가 선수의 자격 논란

1919년 일본인 중심의 조선체육협회가 조직되고, 1920년에는 대한체육회의 전신인 조선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여흥 중심의 종합운동회가 올림픽대회 기준에 맞는 육상경기대회로 진화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그런데 각종 경기에서 조선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자 조선체육협회는 ‘참가 선수의 자격’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1920년 5월 16일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용산 연병장(현 전쟁기념관 자리)에서 춘기(春期) 육상경기대회가 열렸다. 당시 공식 명칭을 육상대경기회였다. 이 대회는 당초 조선체육협회가 결성된 해(1919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3·1만세운동 사건으로 연기됐다. 100m, 200m, 400m, 800m, 1000m, 1500m, 5000m, 1만m, 4×100m 릴레이, 4×200m 릴레이, 10마일 로드레이스, 25마일 로드레이스, 높이뛰기, 멀리뛰기, 장대높이뛰기 등 트랙과 필드에서 15개 종목의 육상경기가 치러졌다. 자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대회여서인지 평

트랙 경기는 왜 '시계 반대 방향' 으로 달릴까?



2011년 8월 30일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선수들이 트랙을 돌고 있다.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대회(파나디나코스 경기장)에서 트랙 경기는 시계 방향으로 달렸다. 1906년 아테네에서 다시 올림픽대회가 열렸을 때도 시계 방향으로 달렸다. 그런데 요즘 모든 트랙 경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 왜 그럴까? 1913년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총회에서 '모든 트랙 경기

의 달리는 방향은 왼쪽'으로 규정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이 굳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규정한 것은, 많은 선수들이 "고대 그리스 올림픽대회에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며 항의하거나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시계 방향으로 달리면 '어쩐지 달리기에 어색하고 불편할뿐더러 기록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정말 그럴까? 전문가들은 "야생마나 경마장의 경주마 혹은 경주견조차 본능적으로 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며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좋은 예로 군인들이 사열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구령도 "우로 봐!"는 있어도 "좌로 봐!"는 없다. 관중들도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처럼 '선수들의 움직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생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많다. 인간의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달릴 때 심장이 트랙 안쪽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학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커브 바깥쪽에 있는 오른팔을 활발하게 흔들 수 있어 기록이 더 좋아진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똑같은 조건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시계 방향으로 달리는 것보다 기록이 좋다는 것이다.

양, 함흥, 밀양, 수원 등지에서 참가 선수들이 몰려들었다.

조선체육협회 주최의 첫 육상경기대회에서 일본 선수들이 단거리와 필드 종목을 석권했으나 400m 레이스에서 천도교청년회 소속 이철호가 1등을 했다. 4×100m 릴레이 레이스에서는 함흥청년회와 만철滿鐵(일제시대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가리킴)이 나란히 1, 2등을 했다.

반면 장거리 레이스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경성 시내를 일주한 10마일 레이스(경성일주마라톤, 16.09km)에서 최홍석, 김상동, 김용만이 나란히 1, 2, 3위로 들어왔다. 인천~경성 코스에서 벌어진 경인마라톤(25마일, 40.23km)에서는 421번을 가슴에 단 임일학이 2시간 45분 11초로 1위, 429번의 조창환이 2시간 46분 12초로 2위를 했다. 당시 마라톤 세계기록은 2시간 36분 34초로였다. 임일학 선수의 기록에 대해 신문들은 "세계기록에 비해 부족함 것이 겨우 9분 17초라, 장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 대회의 장거리 레이스와 마라톤 입상자들의 직업이 문제가 됐다. 이들이 모두 인력거꾼이거나 신문배달원이었던 것. 마라톤에서 1, 2위를 한 임일학, 조창환과 10마일 레이스에서 1위를 한 최홍석은 인력거꾼이었고, 2위 김상동은 '오사카시보大阪時報', 3위 김용만은 '동아경제東亞經濟'의 신문배달원이었다. 선수들의 직업 문제는 이후로도 계속 논란거리였다.

이듬해인 1921년 4월 17일, 일본경기위원회와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제5회 상하이 극동올림픽대회(1921년 5월 30일 개최)에 파견할 선수를 선발하는 제1차 예선대회가 훈련원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10마일 레이스였는데 여기서도 일본인들은 선수들의 직업에 대해 트집을 잡았다. 경기는 대회장을 스타트해 을지로4가~종로4가~경원선 교차점(현 중화동)을 돌아오는 코스였다. 전국의 철각들이 각축을 벌인 이 로드 레이스에서 42세의 노장 김학순이 59분 55초로 1위, 다렌에서 온 일본인 나와타 쇼몽細田尙門 선수가 1시간 10분 25초로 2위를 했다. 다음으로 23세의 박선이 선수가 1시간 40분을 기록하며 3위를 했다.



▲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물장수.
▼ 구한말 인력거꾼의 모습. 이들은 '달리는 직업인'이라 해서 각종 대회에 참가가 제한됐다.

그때 일본 선수를 제외한 1, 3위 두 선수가 인력거꾼이라는 밀고가 들어왔다. 심판들은 10마일(약 16km) 레이스에서는 등급을 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1등에게 주어지는 상품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동아일보는 김학순이 인력거꾼이 아닌지를 조사 중이므로 이에 따라 조선체육협회 전형위원회가 일본에서 열리는 2차 예선에 참가할 선수를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주최측이 조사를 빙자해 시간을 끄는 사이에 선수 선발은 호지부지 끝나고 말았다.⁰⁰⁸

참가 선수의 자격 제한은 조선인 중심의 체육단체인 조선체육회 주최 경기에서도 이어졌다. 1924년 조선체육회는 전국 규모의 육상경기대회인 전조선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 선수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각력(脚力)을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참가를 부득(不得)함”이라 제한 규정의 의미는 평소 다리 힘을 많이 쓰는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 즉 직업적으로 달리는 사람은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달리는 직업’이란 등짐장수, 물장수, 인력거꾼, 신문배달원 등을 가리켰다.

이들이 대회에서 자주 입상을 하며 두각을 나타내자 이들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결국 이들은 달리기를 직업으로 하는 프로선수이므로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한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참가가 제한됐다.

1929년 10월 제5회 조선신궁경기대회 마라톤 우승자인 이성근도 인력거꾼 출신이었다. 그는 이 대회에 서울 대표로 참가해 2시간 39분 57초로 우승했는데, 이는 종전기록을 17분여 단축한 한국최고기록이며 일본 내 상위 10위의 기록 중 3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성근은 이듬해 1930년 10월 제6회 조선신궁경기대회 마라톤에서 2시간 36분 50초로 1위를 하며 또다시 한국최고기록을

⁰⁰⁸ 김상구, 전국체육대회의 발전 과정을 통해 본 체육사적 의의, 부경대 대학원 체육교육 석사논문, 2007년, p20; 동아일보, 1921년 4월 19일자, 경향신문, 1978년 2월 2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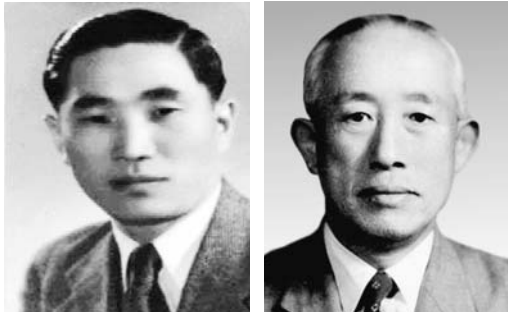
세웠다. 당시 2위는 이성근에게 약 105m 뒤져 도착한 남승룡이었다. 그러나 인력거꾼이라는 직업이 문제가 되자, 이성근은 1931년 8월에 열린 경평^{京平}왕복마라톤대회에는 '백마육상구락부'라는 클럽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3

극동올림픽대회와 첫 해외 원정

인력거꾼의 자격 논란으로 1921년 제5회 상하이 극동올림픽대회에 조선인의 참가가 무산되는 듯했으나, 일부 조선 선수들이 상하이에서 조직된 조선체육인협회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다. 당시 동아일보의 상하이에서 온 소식을 인용하며 “조선 선수의 국제대회 참가에 세상 사람들이 크게 주목”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또 개최날인 5월 30일에 맞춰 ‘조선인 선수 참가, 멀리 건투^{健闘}를 바라노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기도 했다. 사설의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상해래전^{上海來電}에 의하건대 금 삼십일로부터 동지^{同地}에서 개최되는 극동올림픽대회에는 동지 조선인체육협회 명의 하에 조선인 선수도 참가하게 되었다 하며...상해에도 다소의 조선동포가 존재하는지라 유감^{遺憾} 없기를 기^期할 수도 있거니와 오인^{吾人}은 차전^{此電}에 접하고 멀리 서천^{西天}을 바라보니 과연 일희일비의 감을 금치 못하겠도다. 조선인 선수가 국제적 경기대회에 참가한 것은 금차 상해의 예로써 효시^{嚆矢}라 할지니 이는 선수 그 개인의 영예가 될 뿐만 아니라 실로 조



1925년 제7회 극동올림픽대회에 출전했던 주요섭(왼쪽)과 한정주.

선 운동계 전체의 큰 명예가 되며 입지를 변하여 사유하면 이는 조선인이 국제적 무대에 등장하여 열국인과 더불어 기량을 다투는 시작이라 할지니 독獨히 조선인 운동계의 큰 명예가 될 뿐만 아니라 실로 조선인 전체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이로다...

이 사설에서 주목할 부분은 당시 이를 한국 운동선수의 첫 국제대회 참가로 보았다는 점과, “조선을 대표하는 선수를 출출하되 조선 일반 인민이 능히 동정을 기울여 후원의 뜻을 표하지 못하고 이 선수들로 하여금 고독한 가운데 출장하게 하니 비감을 금치 못한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들이 드러내놓고 이들을 응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1921년 5월 31일자 독립신문도 제5회 상하이 극동올림픽대회 만국개방경기 萬國開放競技에 우리 측 8명이 참가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극동올림픽대회는 중국, 필리핀, 일본을 주로 하여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거행하는 일종의 국제적 경기대회로, 제5회 대회는 5월 30일부터 4일간 상하이 신공원에서 거행되고, 이 대회가 끝난 후 6월 3일부터 이틀간 세계 각국의 선수가 경기할 만국개방운동이 있어 여기

는 우리 측에서도 8인이 참가하게 되었으니 성명과 담임한 운동의 과목科目은 다음과 같다.

신기준(100碼, 200碼, 高障礙 및 接力競走)

최찬학(440碼 및 接力競走)

한정주(半英里 및 接力競走)

여운홍 혹 임원근(100碼)

김영희(220碼)

이항진(440碼)

박용무 혹 한규영(5英里競走)

전기前記 과목 중 접력경주(반마일)에는 韓, 中, 俄(러시아), 日 및 상해 해리어스(외국인연합)의 5대로 分分하여 각대에서 4인씩 출장할 터이오, 우리의 운동계를 위하여 많이 활동하는 여운형 씨의 담談에 의컨대 금번 극동대회에 우리 한인韓人도 일독립체一獨立體로 하여 참가하기를 본 대회의 명예간사 卍레이 박사가 일본 잇는 뿌라운 씨를 개介하여 일인 측에 교섭하였으나 우리의 적은 이를 거절하였음으로 부득이 만국개방경기에만 참가케 되었다 하며...

이 대회의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929년 1월 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조선체육계 과거 10년 회고’ 라는 기사에서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기사는 “1921년 5월의 극동올림픽대회에 상해 조선인체육회가 알선하여 조선인 선수를 출장케 한다는 말을 대서특필하였고.....5월의 극동대회는 예정대로 상해에서 열렸으나 조선인 선수의 정식 참가는 문제가 되어 필경에는 ‘삼각산’ 마크를 머리에 붙인 〇〇〇조선인 선수 몇 명이 대회에 번외로 각국 사람이 행하는 경기에 參列한 것밖에 별 수확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극동올림픽대회 또는 극동선수권대회라 불린 이 대회는 다음에 설명

아시아경기대회의 전신 극동올림픽대회

극동선수권대회(Far Eastern Championship Games 또는 극동경기대회(Far East Games)는 일반적으로 극동올림픽대회로 불렸고 간혹 언론 보도에서 동양올림픽 대회나 원동운동대회라는 명칭도 찾아볼 수 있다. 아시아 대륙의 종합 스포츠 대회로 시작돼 오늘날 아시아경기대회(아시안게임)의 전신이다.

극동선수권대회는 1912년, 당시 필리핀 선수협회장과 마닐라 카니발 행사를 주관하고 있던 E.S. 브라운이 일본과 중국에 '극동올림픽경기대회'를 제안한 것이 효시가 됐으며, 1911년부터 1913년까지 필리핀 아마추어선수협회 회장을 지낸 윌리엄 카메론 포브스 총독이 극동올림픽협회를 설립했다. 이후 1913년 2월 4일, 필리핀 마닐라의 카니발 운동장(현재의 리살기념종합운동장)에서 제1회 극동올림픽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8일 동안 열렸으며, 필리핀, 중화민국, 일본 제국, 영국 동인도회사(말레이시아), 타이, 홍콩(당시 영국의 식민지)이 참가했다.

1915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에서는 대회 명칭이 극동선수권대회로, 협회 명칭도 극동체육협회로 변경됐다. 극동선수권대회는 일본이 1929년 대회를 1930년으로 연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개최되다 1934년 제10회 대회부터 4년마다 개최되었다. 개최 연도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1913년 제1회 마닐라, 1915년 제2회 상하이, 1917년 제3회 도쿄, 1919년 제4회 마닐라, 1921년 제5회 상하이, 1923년 제6회 오사카, 1925년 제7회 마닐라, 1927년 제8회 상하이, 1930년 제9회 도쿄, 1934년 제10회 마닐라 등이다.

경기 종목은 육상경기, 수영, 테니스, 농구, 배구, 축구, 야구의 7종목에서 국가 대항 형식으로 치러졌고 남자 선수만 참가가 허용되었다. 모두 10회 대회가 열려 종합 우승은 일본이 5회, 필리핀 4회, 중국 1회를 했다. 극동선수권대회는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경기대회였기 때문에 올림픽대회 금메달리스트들이 대거 참가했다.

1934년 제10회 대회에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가 참가했으나, 중국은 일본의 괴뢰정권인 만주국의 참가를 반대하면서 탈퇴했다. 1938년 제11회 대회부터는 '동양선수권대회'로 이름을 바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인해 취소되었다. 동 체육협회가 해체되자 극동선수권대회도 폐지됐다.⁰⁰⁹

할 조선신궁경기대회와 함께 세계무대로 나아갈 발판으로써 조선 청년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예선대회의 열기도 뜨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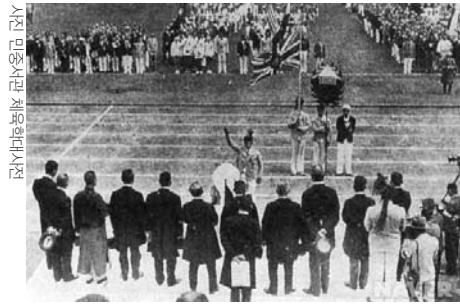
1922년 10월 29일 훈련원에서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열린 제3회 전조선육상경기대회는 오사카에서 열리는 제6회 극동올림픽대회(1923년 5월) 조선 예선을 겸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420여 명이 참가했다. 100m, 400m, 높이뛰기, 장대 높이뛰기,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등의 종목에서 경합을 벌여 1만m에서는 일본인 세키 다케지가 38분 46초 5분의 1로 1위, 양정고보의 김종철이 39분 10초로 2위를 했다. 이듬해인 1923년 마춘식 선수가 극동올림픽대회 400m에 최종 선발됐으나 스스로 출전을 거부해 참가가 무산됐다.

조선인, 중국 선수로 제7회 극동올림픽대회 참가

조선인 선수가 정식으로 참가한 첫 국제대회는 1925년 마닐라에서 열린 제7회 극동올림픽대회다. 1925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는 필리핀에서 거행할 원동(遠東)운동회(극동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중국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운동회가 열렸는데, 그중 우리 동포로서 중국 학교에서 공부하며 경기에 참가하게 된 이가 5명이라고 밝혔다. 명단은 김영호(베이징 루허 중학), 박관해(난징 동난 대학), 신형철·주요섭·현정주(이상 상하이 후장 대학) 등이다. 특히 10종 경기 우승자인 김영호는 3년째 베이징에서 이 종목 1위를 했고, 주요섭은 5000m에서 17분 30초로 종전기록을 52초 앞당기며 우승을 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후 극동올림픽대회 기사를 보면 실제 참가자 명단에 변화가 있었던

⁰⁰⁹ 위키피디아, 두산백과사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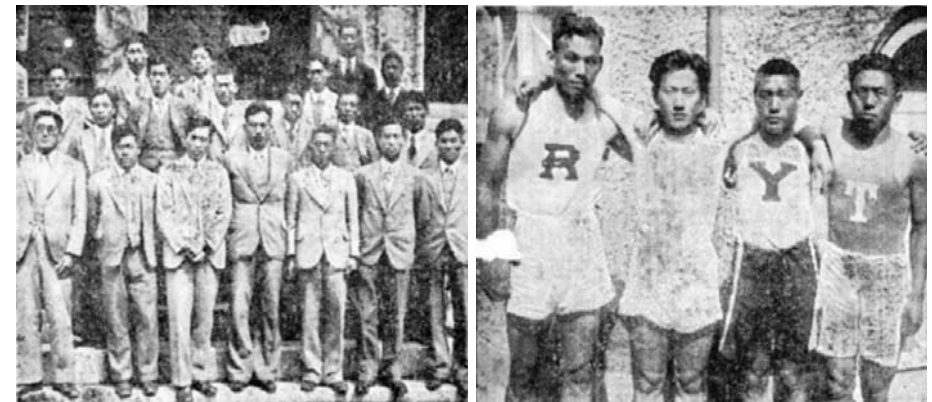
1930년 도쿄에서 열린 제9회 극동선수권대회 개최식 장면.

듯하다. 김영호는 100m와 100m 허들·10종경기에 참가했고, 주요섭은 5000m, 박영진(난징 동난 대학)은 1500m, 현정주는 400m에 참가했다. 경기 결과 주요섭(훗날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쓴 소설가이자 영문학자로 활약)이 1만m 결선에서 3위, 현정주(광복 후 대한축구협회장 및 국회의원을 지냄)가 400m에서 4위, 김영호는 10종경기에서 4657점으로 3위를 했다고 전한다.

중국 유학 시절 장거리 육상 선수로 활약한 주요섭은 1923년 상하이 각 중국 대학생들이 참가한 상하이체육경진회에 참가해 도보경주에서 신형철에 이어 2위를 했고, 1924년에는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남방8대학연합 마라톤에서 후장대 대표로 나가 우승을 하기도 했다. 제7회 극동올림픽대회 참가 당시에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유학 중이었다.

주요섭과 함께 후장 대학에서 유학한 현정주는 이후 육상경기와 축구선수로 활약했고,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대회에 중국 대표단 임원으로 참가한 바 있다. 광복 후 대한올림픽위원회 임원을 지내며 한국 체육의 국제화에 기여했다.

김영호는 평북 의주군 출신으로 1922년 루허 중학 재학 중 학교 춘계운동회에서 육상경기 18개 종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그해 베이징 각 학교 연합운동회에서도 6개 종목에서 1위를 해 “고려 사람들은 본래 운동을 잘 하는 모양”이라는 칭찬이 쏟아져 이 소식이 신문에 보도될 만큼 1920년대 초반 이름을 날린 선수다. 김영호와 박영진은 1926년 8월 10일 베이징 거류 한인동포들을



◀ 1934년 4월 23일 제10회 극동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기념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유장춘, 네 번째 유약한이다. 유장춘은 이 대회 1만m에서 극동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했고, 유약한은 원반던지기과 창던지기 두 종목에 참가했다. 동아일보 1934년 4월 23일자 게재 사진.
▶ 1934년 4월 3일 제3회 경성육상경기선수권대회 1만m에서 조선신기록을 세운 유장춘을 비롯해 경성 대표 선발된 선수들. 왼쪽부터 유약한, 백규복, 손기정, 유장춘. 동아일보 1934년 4월 5일자 게재 사진.

규합해 '북경한인체육회'를 창립하기로 하고 집행위원 직을 맡았다. 이들은 모두 중국 대표로 제7회 극동올림픽대회에 참가했다.

1만m 세계 톱10에 든 유장춘

1925년 전후로 전국적으로 육상경기대회 개최가 붐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기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세계기록과 조선기록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무렵부터 조선의 육상경기가 지역 운동회 수준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국제무대 진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927년 6월 5일 제8회 상하이 극동올림픽대회 조선 예선 및 제19회 전일본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선 예선이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열렸다. 유장춘은 1만m에서 31분 20초 2의 기록으로 우승을 했는데 이 기록은 당시 세계 톱10에 드는 것이었다.

육상경기 용어 변천사

1900년대에서 광복 전까지 사용된 육상경기 용어는 생소한 것들이 많다. 미터법이 완전히 보급되기 전까지 거리를 재는 단위로 단거리에서는 야드yard, 장거리에서는 마일mile이 쓰였다. 이를 한자로 옮겨 yard는 碼, 마일은 哩 또는 英里로 표기 했다. 이에 따라 경기 종목도 100碼, 200碼, 220碼, 440碼, 半哩 또는 半英里, 5哩 또는 5英里 경주가 있었다. 1yard는 91.44cm, 1mile은 약 1.6km로 환산하면 각각 91.44m, 183.88m, 201.17m, 402.34m, 800m, 8km가 된다. 광복 전까지는 마라톤 대신 마라손으로 표기해 26哩4分の1 풀마라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다. 유럽과 미국에는 100야드 달리기, 120야드 허들, 1마일 달리기, 3마일 달리기, 7마일 경보 등의 종목이 있다.

그 밖에 주폭도, 주고도, 봉고도, 접력경주 등 생소한 종목이 많지만 알고 보면 오늘날에도 올림픽대회 정식 종목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들이다. 주고도走高跳는 높이뛰기이고, 주폭도走幅跳, 주건도走巾跳, 주광도走廣跳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 것은 멀리뛰기, 삼단도三段跳 또는 호스점프hop step and jump는 세단뛰기, 봉고도奉高跳 또는 집탱고도執撐高跳는 장대높이뛰기를 가리킨다. 또 허들의 높이에 따라 고장애高障碍 또는 고란高欄(110m 허들), 중장애中障碍(400m 허들), 저장애低障碍 또는 저란低欄(200m 허들)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 밖에 접력경주接力競走는 릴레이를 가리킨다.

투포환, 투원반, 투창, 투해머라는 용어는 1990년대까지도 쓰였으나 한자어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정식 명칭이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해머던지기로 바뀌었다.

유장춘은 23세 때인 1923년 조선신궁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첫날은 청년부 소속으로 1만m에 참가해 우승한 뒤, 이튿날 일반부 소속으로 다시 1만m에 참가해 장거리 일인자이자 라이벌로 꼽히던 변용환(총독부 소속)

을 제치고 또다시 우승을 했다. 이 경기에서 마지막 트랙을 남기고 2위로 달리던 유장춘은 마지막 스피트로 변용환과 40m 이상 간격을 벌리며 우승해 체육계 관계자들은 놀라게 했다. 이후 유장춘은 체신국에 들어가 선수생활을 계속했고 1934년 신년 벽두에 진행된 경성-해주 간 왕복 내한耐寒 마라톤을 비롯해, 경성-인천 간 역전 마라톤, 경성-영등포 마라톤에서 각각 우승을 했다.

1934년 4월 3일 경성운동장에서 경성육상경기연맹 주최로 극동올림픽대회 조선 예선을 겸한 제3회 경성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여기서 유장춘은 1만m에서 32분 25초 2로 김은배가 세운 33분 09초 2를 44초 단축하며 조선신기록을 세웠다. 유약한은 원반던지기에서 42m 72로 1위, 포환던지기에서는 2위를 했다. 양정고보의 이을형은 100m에서 11초 7, 200m에서 25초 5의 기록으로 각각 1위를 했고, 4×400m 릴레이에서도 양정고보가 1위를 하는 데 기여했다. 역시 양정고보의 손기정은 5000m에서 16분 26초 2로 1위를 차지했다.

1934년 6월 17일 경성육상경기연맹 주최로 열린 제2회 실업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도 유장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체신국 소속으로 댄 유장춘은 800m에서 2분 03초 2의 기록으로 우승을 했고, 5000m에서 1위, 1500m에서는 2위를 하는 등 맹활약을 했다. 철도팀 소속의 유약한은 원반던지기에서 38m 13, 창던지기에서 49m 61로 2관왕이 되었고 포환던지기에서는 11m 035로 2위를 했다.

유장춘은 함경남도 이원군 남면 포진리에서 태어나(1910년 또는 1911년 생) 조선질소비료회사에 근무하다 체신국으로 옮겼다. 1934년 마닐라에서 열린 극동올림픽대회 1만m에서 48명의 선수들과 겨뤄 3분 20초 2의 일본신기록이자 극동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이 대회에서 손기정은 8위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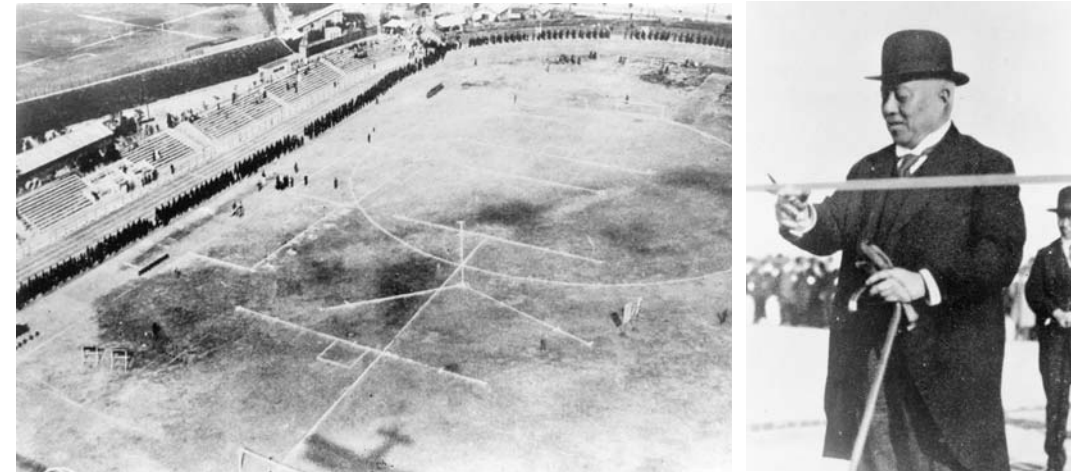
4

현대식 운동장과 조선신기록 작성의 시대

1921년 10월 경성부에서 장충단을 공원으로 만들고 훈련원을 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훈련원은 지면이 평탄하고 면적이 넓어 그라운드를 만들기에 적합하며, 장차 큰 연못을 파서 스케이트장도 만들기로 했다. 한국에 첫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훈련원경성운동장 건립 계획은 예산 부족으로 계속 지연되다가 1924년 다양한 시설을 추가하여 일본 히로히토 황태자의 가례 기념 운동장으로 만든다는 새로운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래서 당시 신문 보도를 보면 훈련원경성운동장, 경성운동장, 경성부기념운동장 등 다양한 명칭이 등장하는데 정식 명칭은 ‘동궁전하어성훈기념 경성운동장 東宮殿下御成婚記念 京城運動場’이었다. 광복 후에는 경성이 서울로 바뀌어 서울운동장이 됐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를 위해 잠실종합운동장이 생기면서, 다시 동대문운동장으로 바뀐다.

경성운동장은 1925년 10월 15일 개장했고, 정식준공일은 1926년 3월 31일이다. 운동장은 3만 3천 평에 달했는데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육상경기장이 한꺼번에 들어선 종합운동장이었다. 야구장의 관객석은 정면 15층, 동서 양쪽 10층씩으로 58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축구경기장은 총 면적이 8천 평으로 1



◀ 1930년 경성운동장의 모습.

▶ 1925년 경성운동장 개장식에 사이토 총독이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 조선신궁경기대회를 위해 지어진 운동장인 만큼 조선인들은 일본 측 텃세에 시달려야 했다.

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테니스장은 시합용 코트 2곳과 연습용 코트 1곳으로 1300명의 좌석을 마련했다.

흥미로운 것은 축구경기장과 함께 설치된 육상경기용 트랙이 500m였던 것. 1912년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대회에서부터 400m 트랙 룰을 적용해 왔으나, 경성운동장 설계 직전에 개최된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대회 때는 트랙이 500m였고, 기타 세계적인 육상경기장이 모두 500m라는 조선체육협회 가와즈 씨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경성운동장을 동양 최대 규모로 건설하고자 했던 당시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세계로 가는 관문 조선신궁경기대회

경성운동장이 개장하자 의기양양한 것은 일본 측 조선체육협회였다. 1925년 10월 15일 운동장 개장식 다음날인 10월 16~17일 양일간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경성운동장, 서울운동장,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중계 하면 으레 “여기는 성동원두, 서울운동장입니다.”라는 아나운서의 멘트로 시작되던 시절이 있었다. 이처럼 성동원두라는 말은 한때 서울운동장의 대명사로 통했다. 풀이하자면 성동원두(城東原頭)는 성동 별판의 들머리라는 뜻이며, 서울운동장은 지금의 동대문운동장을 가리킨다.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로 잠실경기장이 생겨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운동장은 그야말로 유일무이하다시피 했던 한국 스포츠 역사의 산실이었다. 전국 체전과 소년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의 어지간한 대회는 빠짐없이 이곳에서 열렸으며, 막판 탈락을 아쉬워했던 올림픽대회 축구나 월드컵축구대회 아시아예선전이 벌어졌던 곳도 여기였다.

하지만 서울운동장이 스포츠의 공간만은 아니었다. 이곳은 때로 정치의 공간이자 근현대사의 현장이기도 했다. 가까이는 체제수호 명분의 각종 궤기대회와 규탄대회가 자주 열렸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광복 직후에 찬탁이다, 반탁이다 하여 좌우익이 충돌하던 때의 정치집회공간이었는가 하면, 일제 말기에는 전시동원체제에 편승한 기념행사가 자주 개최됐던 장소가 모두 이곳이었다.

동아일보 1926년 10월 1일자에 수록된 경성운동장 일대의 전경을 보면 저 멀리 왼쪽은 야구장이고, 오른쪽은 축구장(필드트랙)이다. 가까이 보이는 공간은 테니스장이다. 원래 이곳은 서울성벽이 지나는 언덕 구간이었으므로 높은 지형은 그대로 관중석으로 응용되었다.

그렇다면 이 동대문운동장은 언제, 어떠한 연유로 생겨난 것일까? 개장 당시 이곳의 정식 명칭은 ‘동궁전하어성혼기념 경성운동장(東宮殿下御成婚記念 京城運動場)’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궁전하는 일본 황태자, 머지 않아 쇼와 천황이 되는 히로히토(裕仁)를 가리킨다. 그 당시 섭정 노릇을 했던 히로히토 황태자의 결혼식은 1924년 1월에 있었다. 당초 결혼식은 1923년 가을로 예정되었으나, 그해 9월 느닷없는 간토대지진의 발생으로 한 차례 연기되었다.

경성운동장은 곧 그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일본 제국의



▲ 1957년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어머니대운동회 모습.
▼ 1950년대 후반 서울운동장의 모습.

최대 경사를 경축하는 뜻을 담은 동시에 “특히 운동을 사랑하시는 동궁전하의 기념사업으로 운동장 설치 계획을 세움은 적당한 처치”라는 것이 그 건립의 이유였다.

이 운동장이 생기기 전까지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운동경기를 열 수 있었던 곳은 훈련원 터와 용산연병장, 장충단공원 정도였다. 그 가운데 훈련원 터는 매우 너르기도 했거니와 시내 중심지와 멀지도 않은 곳이어서 새로운 운동장 건립 부지로 선택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신문자료를 훑어보면, 경성운동장 관련기사에 ‘성동원두’만큼이나 빈번하게 ‘훈련원두(訓練院頭)’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경성운동장이 건립된 자리는 훈련원 터의 중심부가 아니라 그 옆으로 한참 비껴난 위치였다. 말하자면 훈련원 자리는 지금의 훈련원공원과 국립의료원 일대를 모두 포함하는 지역이고, 그 동쪽으로 비껴난 동대문운동장(지금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은 비록 훈련원 터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멸절했던 서울성벽을 허물고 깎아낸 자리에 새로 터를 닦은 공간이었다.

어차피 이곳이 성벽이 있던 자리였으므로 짝값으로 공간을 활용하자는 의도가 있었을 테고, 실제로도 약간 높은 언덕이었던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려 관중석으로 만드는 식으로 공사가 이뤄졌다. 정확하게는 메인스타디움(축구장) 중간을 가로지르는 위치에 500년 역사의 서울성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야구장이 있던 자리는 이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근대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여기에는 원래 훈련원에 부속된 하도감_{下都監}이라는 기관이 있었다. 1882년 임오군란 때 별기군의 교관인 일본인 장교 호리모토가 피살된 현장이 이곳이었으며, 이 난리를 핑계로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왔던 장수 오장경, 마건충, 원세개등이 진을 쳤던 곳 또한 하도감이었다. 그리고 1884년 갑신정변 때는 원세개의 진지였던 이곳에 고종 임금이 3일간이나 보호라는 명분으로 피신한 적도 있다.

이러한 타인지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에도 한참 동안 경성운동장의 동남 모서리(즉 야구장 뒷편)에는 오무장공사_{吳武壯公祠}(‘정무사’라고도 함)라는 사당과 오장경의 비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전해진다.

역사의 굴곡이 뒤엉킨 자리와 서울성벽이 지나는 공간을 합쳐 만들어낸 것이, 그것도 일본 황태자의 결혼식을 기념하는 명분으로 건설한 것이 바로 축구장, 육상경기 트랙, 야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을 아우르는 ‘동양 최대의 종합경기장’ 경성운동장이었다. 더구나 이곳은 단지 스포츠의 공간이 아니라 때로 정치, 사회, 문화의 현장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틀림없는 ‘종합’ 경기장이었다.

글 · 이순우 우리문화재자료연구소 소장

제1회 조선신사진좌식_{鎭座式} 축하경기가 열렸다. 조선신궁의 원래 명칭은 조선신사였으나 1925년 6월 27일 일본 내각고시에 의해 사격_{社格}을 높여 신사가 신궁으로 개칭되었고, 당시까지는 조선신사 또는 조선신궁이라는 용어가 혼용된 듯하다.

조선신궁이란 서울 남산에 세워진 신사로, 일본 천황가의 선조를 제신으로 모셨다.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신궁을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상징으로 삼고 조선인들에게 참배를 강요했다. 일본인 중심의 조선체육협회가 경기대회를 개최한 목적도 여기에 있었다. 조선신궁경기대회란 ‘조선신궁의 봉찬_{奉贊} 경기대회’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경성운동장은 조선신궁봉찬체육대회 또는 조선신궁경기대회를 위해 지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선신궁경기대회는 해마다 10월에 경성운동장에서 13도 대표가 참가해 여러 경기를 겨뤘다. 당시 서울은 경기도에 속했고 제주도는 전남으로 참가했다. 조선 선수들은 1926년 제2회 대회에 26명이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대회 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

1926년 10월 경성운동장에서 열린 제2회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 조선인은 육상경기의 장거리 종목과, 농구, 배구, 축구 등 구기 종목을 석권했다. 육상경기 입상자를 살펴보면 1500m 황대선이 4분 45초 5분의 1로 1위, 강찬격이 3위를 했고, 5000m에서는 강찬격 17분 14초 1위를 하고 2위 이면훈, 3위 최경락이었다. 1만m에서 1위는 일본인에게 내주었으나 2위부터 4위까지는 이면훈, 최경락, 강찬격이 나란히 차지했다. 황대선은 800m에서도 2분 14초 3으로 1위를 했다. 장대높이뛰기에서 민태옥은 3m로 일본기록을 돌파하며 1위를 했다. 원반던지기에서는 유약한이 30m 82로 1위를 했다.

조선인은 장거리 종목에서 강세

제3회 조선신궁경기대회는 1927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열려 다수의 조선신기록이 우리 선수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1927년 10월 20일자 동아 일보는 3회 대회 총평 기사를 실으면서 “종래 일본인이 가졌던 최고기록 4종을 조선인이 빼앗았고 일본인은 겨우 조선인이 가졌던 최고기록 1종을 빼앗았을 뿐”이라며 조선인의 선전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육상경기는 26개 종목이 치러졌는데 조선인 우승자의 기록을 보면 800m 황대선 2분 8초, 5000m 최경락 16분 53초 2(조선신기록), 1만m 도기호 34분 53초(조선신기록), 멀리뛰기 전용길 6m 44.5(조선신기록), 마라톤은 앞서 소개한 마봉옥이 3시간 29분 37초로 조선 최초 공인기록을 세웠고 3위는 강찬격이었다. 10종경기 황성주는 4429점으로 3위를 했으나 1, 3위까지가 조선신기록이었다. 최경락은 이 대회에 앞서 7월에 열린 도쿄 유학생 고국방문 환영육상경기대회에서 경성 대표로 참가해 5000m에서 16분 42초로 조선신기록을 세웠으나 신궁경기대회에서는 자신의 기록에 미치지 못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은 유독 장거리 종목에서 강세를 보였다.

제3회 조선신궁경기대회부터 아동부(초등학교) 경기가 열려 10월 16일 100m에서 죽점공립보통학교 백복남이 12초 8의 기록으로 자신이 앞서 10월 1일 경성부 주최 제4회 ‘체육데이’에서 세운 13초 4의 기록을 깨뜨렸을 뿐 아니라 일본인 쓰지카와의 기록 14초 2와 견주어도 월등히 앞섰다.

백복남은 이듬해 1928년 조선체육회 주최 제3회 육상경기대회 100m에서 12초 4로 다시 한 번 자신의 기록을 깨뜨리며 소년부 조선신기록을 세웠다. 백 선수는 죽점공보의 야구선수로도 활약했다. 나머지 경기에서도 조선 아동들의 기록이 일본보다 우수하자 당시 민족계 신문들은 “이로써 조선인의 체력이 원체 부족한 것이 아님을 알 것 아닌가”라며 의미를 더했다. 1927년 조선신궁대회에서 나온 10개 신기록 가운데 7개가 한국인에 의해 작성되었다.

1928년 10월에 열린 제4회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도 신기록 작성은 계속되었다. 특히 일반부 5000m와 1만m에서는 5위까지 모두 조선인이 휩쓸어 장거리의 강자임을 입증했다. 당시 일반부 1위 기록을 보면 5000m에서 백규복이 17분 27초 4로 1위를 한 데 이어 이면훈, 오등이, 송영복, 김구영 등 5위까지가 조선인이었다. 1만m는 도기호가 35분 39초로 1위를 했고 광석근, 마봉옥, 오성근, 김구영이 나란히 5위까지 차지했다. 그 밖에 5종경기 노승현 2480점, 10종경기 김봉구 4202점으로 각각 1위를 했다.

청년부 경기 경과는 100m 김복명 11초 6, 200m 김복명 23초 8, 400m 한신상 56초 29(조선신기록), 1500m 변용환 4분 31초 2(청년신기록), 높이뛰기 박기평이 1m 7(청년신기록)을 세우며 각각 1위를 했고, 창던지기에서는 김상수가 42m 80으로 1위를 했다. 특히 100m에서 김복명이 기록한 11초 6은 당시 단거리 분야 최고 스타이자 일반부 100m에서 1위를 한 일본인 야노 사카에(矢野榮)의 기록과 같은 것이었다.

일취월장한 조선인의 실력

1929년 제5회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부터 각 종목별로 조선인의 기량이 일취월장해 20개의 대회신기록 중 9개가 조선인에 의해 작성되었다. 특히 장거리는 조선인의 독무대였다. 일반부 우승 기록을 보면 400m 심진건 53초, 5종경기 유약한 2789점 모두 조선신기록을 세웠다. 유약한은 원반던지기에서도 36m 37로 1위를 했다. 1500m에서는 변용환이 46분 26초 1로 1위를 한 것을 포함해 2위를 뺀 6위까지 조선인이 차지했다. 5000m에서는 광석근이 16분 32초로 조선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한 것을 포함해 5위까지가 조선인이었다. 1만m에서는 이성근이 35분 37초 4로 1위를 한 데 이어 김은배, 최경락, 이면훈, 한희평 등 2~5위까지가 모두 조선인이었다. 청년부 1위는 100m 김복명 11초 5(대회신

기록), 200m 김복명 23초(대회신기록), 5000m 변용환 16분 34초(대회신기록), 멀리뛰기 박기평 6m 53(대회신기록) 등이었다.

또 5회 대회부터 여자부 경기가 진행되었으나 조선인과 일본인이 따로 경기를 치렀다. 초기 조선 여자 선수들의 1위 기록을 살펴보면 50m 조경순 7초 5, 100m 조경순 14초 2, 4×100m 릴레이 대구여고보팀(권소해·심란숙·송순희·이두남) 59초 2, 멀리뛰기 조경순 4m 14 등으로 부산 출신의 조경순이 3관왕이 되었다. 이후 여자부 경기 결과는 '여성 육상경기대회 참가하다' 편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1930년 10월 제6회 조선신궁경기대회 5000m에서 변용환이 16분 5초로 조선신기록을 작성했다. 이후에도 기록이 쏟아졌다. 일반부 1500m에서 백규복이 4분 14초 6으로 조선신기록을 수립했고, 1만m에서는 김은배가 33분 09초 2로 조선신기록을 세우며 1위로 들어온 데 이어 변용환, 유해봉, 남승룡, 오용성 5위까지가 모두 조선인이었다. 그 밖에 800m 황대선 2분 11초 2, 110m 허들 김환민 16초 9, 멀리뛰기 박기평 6m 445, 원반던지기 유약한 3m 47로 각각 1위를 했다. 청년부에서는 1500m 변용환 4분 21초 6, 높이뛰기 박기평 1m 702로 1위를 했고 창던지기에서 노승현은 53m 35로 조선신기록을 세웠다.

1931년 제7회 조선신궁경기대회 100m에서 드디어 조선의 최인호(배재고)가 11초 7로 1위를 해 단거리에서도 조선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5000m에서는 유해봉(양정)이 18분 20초 8의 기록으로 1위를 한 데 이어 5위까지가 모두 조선인이었다. 또 110m 허들 김환민 16초 5, 창던지기 노승현 54m 492, 5종경기 유약한 3048.19점(자신이 세운 종전기록 2782.95점을 경신)이 각각 1위를 했다. 물론 이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에서 김은배가 2시간 26분 12초로 조선최고기록이자 비공인 세계최고기록을 세운 것이었다.

단거리의 김유택, 세단뛰기 김원권 부각

1932년 제8회 조선신궁경기대회 일반부 결과를 보면 1만m에서 1위는 남승룡 34분 41초 4였고 2위는 손기정, 3위 정태환, 4위 송영복, 5위 김계선 등 조선인의 맹활약이 돋보였다. 1500m에서는 백규복이 4분 26초 8로 1위였고 3위를 뺀 2~5위까지가 모두 조선인이었다. 중장애는 김환민 1분 00초 6, 포환던지기 장병기 10m 80, 해머던지기 주홍근 29m 2, 5종경기 유약한 2709점으로 각각 1위를 했다. 마라톤에서는 남승룡이 2시간 48분 35초로 1위를 했다. 청년부에서는 양임득이 5000m 16분 14초와 1500m 4분 22초, 400m 김만식 54초 4, 창던지기 노승현 54m 74로 각각 1위를 했다.

1933년 제9회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도 신기록이 쏟아졌다. 일반부 단거리에서 김장률이 200m 23초 7로 1위와 100m 2위를 했고, 변용환이 5000m에서 16분 02초로 대회신기록, 110m 허들 김환민 16초, 세단뛰기 이용학 13m 99로 각각 1위를 했다. 유약한은 원반던지기 40m 27, 창던지기 53m 20으로 1위를 차지해 2관왕에 올랐다. 그리고 마라톤에서 손기정이 2시간 29분 34초 4로 1위, 남승룡은 2시간 30분 51초 6으로 2위를 했고 1,2위가 모두 세계최고기록이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비공인으로 남게 되는데, 자세한 상황은 뒤에 마라톤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1934년 제10회 조선신궁경기대회 육상경기 남자 일반부 5000m에서 유장춘은 15분 38초로 조선신기록을 세웠고 1만m에서도 32분 30초로 조선신기록을 세웠다. 1935년에도 유장춘의 활약이 계속됐다. 메이지신궁대회에 나간 유장춘은 1만m에서 31분 59초 8로 아깝게 2위를 했다.

1935년 제11회 조선신궁경기대회 일반부에서는 마라톤에서 유장춘 2시간 30분 24초 1위, 손기정 2시간 33분 39초 2위였다. 그 밖에 기록을 보면 김종한이 800m 2분 02초 1, 안영식이 창던지기 37m 06으로 조선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했고, 김인식은 200m에서 22초 8로 1위를 했다. 유장춘은 1936년 3월 전일

본마라톤연맹 주최 도쿄마라톤에서 2시간 41분 33초로 2위를 하기도 했다.

1937년 제13회 조선신궁경기대회 겸 제6회 전조선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3000m 장애물레이스에서 김연석이 10분 39초, 5000m 양임득(기록 불명), 해머던지기 백승욱이 4m 54, 세단뛰기 김원권 15m 23 등 4명의 선수가 조선 신기록을 세웠다. 또 1만m 전문의 유장춘이 마라톤으로 전향해 2시간 30분 36초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것도 화제를 모았다.

기록 경신은 1938년 제14회 조선신궁경기대회 겸 제7회 전조선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이어져 800m에서 홍현문 2분 1초, 세단뛰기에서 김원권이 15m 45이 조선신기록을 세웠다. 그 밖에 김유탉이 100m에서 10초 9와 200m에서 22초 6으로 1위, 5000m 최준근이 15분 51초, 높이뛰기 김원룡(김원권의 형)이 1m 80으로 1위를 했다. 마라톤은 전해에 이어 유장춘이 2시간 44분 8초 8로 우승했으나 기록은 저조했다.

1939년 제15회 조선신궁경기대회 해머던지기에서 보성전문의 백승욱·인강환 두 선수가 46m 76, 45m 41로 나란히 1,2위를 했는데 둘 다 조선신기록이었다. 높이뛰기 김원용이 1m 80, 원반던지기 박찬규 42m 9, 창던지기 이병찬 52m 4, 장대높이뛰기 조용휘 3m 7, 200m 한운섭 23초 1, 800m 서승렬 2분 0초 4, 4×100m 릴레이 양정 45초 3, 1만m 양정 우승, 5000m 이영환 16분 29초 4, 마라톤은 이동천 2시간 14분 0초 6으로 각각 1위를 했다. 원반던지기의 박찬규는 그해 메이저신궁경기장에서 열린 전일본 일본대학생대륙학생대항 경기에서 일본 선수들을 물리치고 1위를 하기도 했다. 조선신궁경기대회는 도쿄에서 열리는 메이지신궁경기대회의 예선전을 겸하고 있어 조선인이라도 세계무대에 나가려면 반드시 이 대회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측의 조선체육협회는 배재고보나 휘문고보 운동장을 빌려 써온 조선체육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현대적 시설의 경성운동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다. 조선체육협회는 경성운동장이 조선신궁대회를 위해 지었다는 명분을 내세

워 조선체육회 측을 은근히 압박하는가 하면, 모든 일정을 자신들 우선으로 정하는 등 횡포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조선체육회와 조선체육협회의 대결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1925년 경성운동장의 개장으로 근대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인 시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마봉옥이 작성한 한국 마라톤 첫 공인기록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첫 공인기록이 작성된 것은 1927년 10월 17일 제3회 조선신궁경기대회 마지막 날이었다. 그 전까지는 10마일(약 16km) 또는 20마일(약 32km) 경기가 열렸으나 제3회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부터 26마일 4분의 1(42.195km)의 공식 마라톤 코스를 채택했다. 당시 철도국 말단 직원이었던 마봉옥은 경성운동장을 떠나 청량리~망우동~동대문~의주로~용산역~을지로~왕십리를 거쳐 다시 경성운동장으로 돌아오는 복잡한 마라톤 코스에서 3시간 29분 34초의 기록으로 1위를 했다.

마봉옥은 이듬해 1928년 5월 6일 서울에서 열린 암스테르담 올림픽대회 조선예선대회 마라톤에서 3시간 15분으로 자신의 기록을 깨는 데 성공했으나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해 올림픽대회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당시 2위는 최경락이었다. 마봉옥은 그해 열린 제4회 조선신궁경기대회 마라톤에서 2시간 57분 34초로 다시 한 번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나 마봉옥의 시대는 여기까지였다. 이후 2년간은 마라토너 이성근의 시대가 펼쳐졌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력거꾼이었던 이성근은 1929년 제5회 조선신궁경기대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일반부 마라톤에서 이성근은 2시간 39분 57초로 마봉옥의 기록을 깼다. 2위 최주원 2시간 42분 22초, 3위 일본인 다케우치 2시간 49분 46초, 4위 안석기 2시간 53분 27초, 마봉옥 2시간 53분 55초였다. 사실 마봉

욱도 자신의 기록을 넘어섰지만 이성근의 역주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5회 조선신궁대회 마라톤은 1~5위까지 모두 조선최고기록을 작성했다.

이듬해인 1930년 10월 19일 제6회 조선신궁경기대회 마라톤에서 이성근은 전해에 이어 또다시 1위를 했다. 기록은 종전 자신의 기록을 3분 7초 앞당긴 2시간 36분 50초. 1927년 조선에서 처음 정규 코스의 마라톤 경기가 열려 마봉옥이 3시간 29분 34초를 기록한 이래, 1928년 마봉옥 2시간 57분 34초, 1929년 이성근 2시간 39분 57초, 1930년 이성근 2시간 36분 50초까지 4년 만에 무려 52분 44초나 단축하며 한국 마라톤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이듬해인 1931년 10월 18일 제7회 조선신궁경기대회 마라톤에서 한국 마라톤 역사에 길이 남을 대기록이 수립됐다. 마라톤 코스는 경성운동장 트랙을 두 번 돌고 경인가도를 지나 수원 중간쯤에서 돌아오는 42.195km. 양정고보의 김은배가 2시간 26분 12초의 경이적인 기록으로 우승한 것. 이는 백마구락부 소속 이성근이 세운 조선 최고기록 2시간 36분 50초를 무려 10분 38초나 단축했고, 일본 최고기록 2시간 35분 24초에 비해서도 9분 12초나 앞선 대단한 기록이었다. 나아가 1920년 벨기에 안트베르펜 올림픽대회에서 핀란드의 한네스 콜레마이넨이 세운 세계기록 2시간 32분 5초 38보다 5분 52초 62를 앞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기록은 공인코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인 세계기록으로 남았지만 당시 신문이 호외를 발행할 만큼 조선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1932년 제8회 조선신궁경기대회 마라톤에서는 양정고보의 남승룡이 2시간 48분 35초로 1위, 이 대회에 처음 출장한 해주 출신의 신인 손정인이 2시간 49분 5초로 2위를 했다. 그러나 손정인은 레이스 도중 셋길로 잘못 든 것이 확인돼 실격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기록이 매우 저조했는데 당시 언론은 마라톤 코스인 경인가도의 노면 상태가 불량하고 강풍에 비까지 내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손기정도 이 대회에 참가했으나 1만m에서 남승룡(34분 41초 4)에 이어 2위를 하는 데 그쳤다.

1933년 제9회 조선신궁경기대회 마라톤에서는 양정고보의 손기정이 2시간 29분 34초 4로 1위, 전남 소속으로 뛴 남승룡이 2시간 30분 51초 6으로 2위를 했는데 1, 2위 모두 세계최고기록이었다. 당시 세계최고기록은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에서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자바라가 세운 2시간 31분 36초 2였다. 그러나 2년 전 김은배가 세계최고기록을 세웠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었다. 당시 김 선수의 기록이 워낙 뛰어나자 거리 측정이 잘못되었다, 시계가 고장 났다 등의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으며 결국 거리가 정규 코스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귀결된 적이 있다. 제9회 때도 코스가 문제였다. 이번에는 주최 측인 조선체육협회가 경기 10여 일 전부터 일금 1백 원을 들여 엄격하게 코스를 측정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2년 전 김은배가 주파한 반환점을 예전보다 조금 멀리 두는 정도로 적당히 코스를 잡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은배 선수가 뛰었던 코스보다 더 긴 것은 확실하나 정규 코스를 채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결국 이번에도 비공인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그해 11월에 도쿄에서 열린 메이지신궁경기대회 마라톤에 손기정과 남승룡이 참가해 남승룡이 2시간 32분 33초로 2위를 했다. 1위는 일본 시코쿠 출신의 구스노키 요시조楠好藏로 그가 세운 2시간 31분 10초는 일본 최고기록이자 비공인 세계최고기록이었다.

5

우리 힘으로 개최한 육상경기대회

조선체육회는 체육을 통한 항일이란 취지로 뜻을 올렸지만, 극동올림픽대회 예선과 같은 비중 있는 대회를 조선체육회가 자체적으로 개최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인 중심의 조선체육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조선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우리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으로 일본 선수를 누르고 세계무대에 나간다면 극일(極日)이란 민족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말하자면 '참여 속의 극일'인 것이다.

이후 조선체육회도 우리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고 입지를 살리기 위해 종합대회, 특히 모든 스포츠의 기본인 육상경기의 보급에 앞장서면서 조선체육협회와 당당히 경쟁하게 되었다.

1920년 5월 29일 종로중앙청년회YMCA 운동부 주최로 경성에 있는 각 사립 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가 열렸다. 6개교가 참가한 가운데 800m에서는 휘문의숙의 이병수가 2분 3초로 우승을 했고, 높이뛰기도 휘문의 강창준이 5척_R 7촌_寸 9분_分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멀리뛰기는 경신학교의 김상혁이 17척 2촌으로 1위를 했다. 당시 기록에서 미터법을 쓰지 않고 척과 같은 단위를 사용한 것이 눈길을 끈다. 시상식이 끝난 뒤 밖으로 나온 수백 명의 학생들이 우승자 3명을

헝가래치며 '플레이'를 외치자 이를 구경하기 위해 종로 일대에 시민들이 몰려 들었고, 또다시 '만세' 사건이 난 줄 알고 놀란 경찰 십수 명이 출동해 해산시키기도 했다.⁰¹⁰

경성의 사립중등학교 육상경기대회는 조선인 중심의 체육단체가 주최한 최초의 육상경기대회로, 당시 긴 공백기에 처해 있던 우리나라 육상경기 발전에 기폭제 노릇을 했다.⁰¹¹

1922년에는 조선 내 7개 전문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조선학생회가 결성되었다. 조선학생회는 각종 강연회, 음악회,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연합정구대회, 육상대회 등 스포츠 행사에도 관심이 많았다. 1924년 5월 11일 훈련원에서 조선학생회 주최로 전조선학생육상경기대회가 열렸다. 1만2000m 레이스에서 양정고보의 최경락이 1시간 24분 10초로 1위를 했고, 경성고등공업학교의 김수옥이 1시간 28분 56초로 2위, 양정고보의 양승환이 1시간 32분 48초로 3위를 했다. 그러나 이 대회는 첫회로 중단되었다.

연례 육상경기대회가 시작되다

1923년 11월 3일, 연희전문학교가 주최한 제1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전조선중등학교연합경기대회)가 열렸다. 연희전문 운동장(지금의 신촌 연세대)에서 열린 이 대회는 우리 힘으로 개최한 최초의 연례 육상경기대회로 기록된다.

제1회 대회에는 배재고보, 양정고보, 중앙고보, 송도고보, 경신학교, 협성학

⁰¹⁰ 동아일보 1920년 5월 30일자.

⁰¹¹ 김봉섭, 한국 근대 스포츠의 전개 양상-1880~1940년간 근대 스포츠의 도입 수용 확산, 용인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논문, 2003년, p54.

교, 청년회학관, 공주영명학교 등 전국 8개 학교가 참가해 50마(45.72m), 220마(182.88m), 440마(402.336), 880마(804.67m), 반 마일(804.67m) 릴레이 레이스, 1마일(약 1.6km), 약 5마일 장거리 레이스(약 8km), 높이뛰기, 멀리뛰기 등 10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당시에는 거리를 마碼(yard)로 표시했다. 첫해에는 개성의 송도고보가 우승을 차지했고, 양정고보와 배재고보가 그 뒤를 뒤따랐다. 이후 양정고보가 대부분의 대회를 석권했다.

후원사인 동아일보는 대회가 끝난 뒤 조선체육협회 주사인 가와즈 히코시로의 비판과 조언을 신문에 게재했다(동아일보 1923년 11월 11일자). 글 가운데 “훈련으로 승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안 신었느냐로 승부가 결정된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당시 대회 준비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와즈는 “스타트를 잘 하고 못하느냐에 따라 2m, 3m의 차이가 나므로 스타트 훈련을 해야 한다.”라든가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장래에 일본 전국의 높이뛰기, 멀리뛰기 기록은 반드시 조선인의 손으로 깨뜨릴 줄 믿는다. 이번 대회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허들 종목도 연습하는 게 좋겠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또 “미터제로 바뀌야 다른 나라와 기록을 대조할 수 있고, 운동장을 지금의 배로 크게 만들라.”고 조언했다.

1924년 11월 8일 연희전문이 주최한 제2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가 열려 송도고보, 양정고보, 배재고보, 고등예비학교, 청년회학관, 휘문고보, 협성학검, 보성고보 등 8개교가 참가했다. 양정은 이종원이 100m 12초 22, 200m 26초 22, 창던지기 40m 782에서 모두 1위를 하며 3관왕에 올랐다. 800m에서는 양승환 2분 31초 2, 4×200m 릴레이에서도 양정팀이 1위를 했다. 나머지는 400m 김장률(송도·1분 2초 12), 1100m 장관식(배재·5분 13초 2), 높이뛰기 김기수(배재·1m 742)가 각각 1위, 4×400m 릴레이에서 배재가 3분 20초 12로 양정을 물리치고 1위를 했다. 종합 우승은 양정에게 돌아갔다. 이 대회는 매년 전해 우승 학교가 우승컵과 우승기를 반납하고 마지막 날 최종

우승 학교에 다시 우승기가 전달되는 형식이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 간 라이벌전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1925년 3회 대회부터는 개최 시기를 9월로 앞당겨 열려 양정, 제일고보, 제이고보, 송도고보, 청년학과, 배재, 매동상업, 휘문 등이 참가했고 처음으로 송도가 우승을 했다. 당시 최고 인기를 누리던 8마일(약 12.8km) 달리기에서는 2,3회 대회 모두 강찬격이 1위를 했다. 1회 대회 때는 8마일이 아닌 5마일(약 8km) 경주를 치러 역시 강찬격이 우승을 한 바 있다. 강찬격은 1,2회 때는 송도고보로, 3회 대회는 양정고보 선수로 참가한 것이 눈에 띈다. 강찬격은 1925년 조선신궁경기대회 5000m에서도 1위를 하며 장거리계에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강찬격의 5000m 기록 16분 57초 6은 1927년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 최경락이 세운 16분 53초 2에 의해 깨지고 말았다. 또 1927년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 마봉옥이 마라톤에서 조선 첫 공인기록을 냈을 때 최경락은 3위를 했다.

한편 1926년에 열린 제4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는 전해 우승팀 송도와 양정, 배재가 치열하게 응원전을 벌여 더욱 열기가 고조되었다. 배재는 권정규가 400m·멀리뛰기·높이뛰기에서 1위를 했고, 흥봉기가 이끈 제주팀이 4×400 릴레이에서도 1위를 했다. 양정은 김장률이 100m·200m, 유석남이 원반던지기과 창던지기에서 1위, 1500m에서도 이면훈과 최경락이 나란히 1,2위를 했다. 결국 양정이 다시 1위, 배재 2위, 송도가 3위를 했다.

1927년 제5회 대회에는 중앙고보, 경신학교, 선린상업고, 경기상업고가 가세했다. 기록을 보면 100m 이용곡(제일고·11초 62), 200m 황대선(양정·57초 8·대회신기록), 800m 황대선(2분 20초 3·대회신기록), 1500m 정상희(양정·4분 53초 3·대회신기록), 4×200m 릴레이 문영각 외(경기상고·1분 46초·대회신기록), 4×400m 릴레이 신윤범 외(양정·4분 6초 6), 높이뛰기 강태훈(경기상고·1m 552), 포환던지기 송정환(선린상고·10m 89·대회신기록)이 각각 1위를 했다. 특히 양정의 유석남은 멀리뛰기(5m 722)에서 1위를 하고, 원반던지기



▲ 1925년 제3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송도고보 육상경기부. 동아일보 1925년 9월 25일자 게재 사진.
 ■ 1930년 제8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양정고 육상경기팀.
 ▼ 우승기를 받는 양정고(왼쪽)와 1500m 경기 모습. 동아일보 1930년 9월 26일자 게재 사진.



제3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 8마일 마라톤 우승자인 강찬국. 동아일보 1925년 9월 25일자 게재 사진.

기(30m 80)와 창던지기(45m 368)에서 모두 대회신기록으로 1위를 했다. 1928년 제6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에서도 배재가 분발했으나 양정을 넘어 서지 못했다.

치열한 학교 간 라이벌전

1929년 제7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에는 이미 참가 선수가 연인원 434명에 이르렀고 경성고보가 가세했다. 주요 기록을 보면 110m 허들 김환민 16초 2, 원반던지기 유약한 33m 55, 창던지기 강필상 43m 03, 포환던지기 유약한 12m 29, 해머던지기 주흥근 23m, 높이뛰기 노좌근 1m 65, 200m 저허들 김환민 27초 6, 세단뛰기 양원문 12m 9 등 7종목에서 대회신기록이 작성되며 양정이 5연패를 했다. 이듬해 제8회 대회에서도 또다시 양정이 제이고보의 추격을 뿌리치고 우승하여 육상경기 분야에서 양정의 독주가 계속되었다.

1932년 10주년을 맞은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에서 양정이 또 우승을 했지만, 2위 중앙고보, 3위 해주고보, 4위 휘문고보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

이 대회에서 5개의 대회신기록이 나왔는데, 100m 이세화(중앙고보) 11초 12, 400m 김종원(양정) 55초 24, 4×100m 릴레이 중앙 46초 36, 1500m 손기정(양정) 4분 28초 24, 8마일(약 12.8km) 남승룡 42분 53초 등이다. 2위는 손기정이었다. 장거리 종목에서 손기정 선수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934년 제12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는 트랙에서 양정, 필드에서 송도로 양분돼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휘문의 홍정희가 원반던지기에서 35m 50(중전기록 30m 80)을 던지는 등 4개의 대회신기록이 수립되었다.

1935년 제13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는 송실고보의 추격 속에 양정이 열한 번째 우승을 했다. 원반던지기에서 휘문의 홍영희가 35m 70, 양정의 백승욱이 34m 50으로 모두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1,2위를 했고, 800m 제이고의 이민홍이 2분 9초 2, 4×400m 릴레이 레이스에서 양정이 3분 46초로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1937년 제15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는 양정과 배재의 대격돌로 손에 땀을 쥐는 경기가 계속되었다. 100m에서 배재의 김유택이 11초 3으로 1위를 하고 양정의 이경의와 백오현이 2, 3위, 4위는 다시 배재의 최규형이 차지하는 등 모든 종목에서 두 학교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경기를 이어갔다. 400m에서 양정의 이경의가 53초 2로 대회신기록을 작성했고, 그 뒤를 배재의 박춘배가 54초 2의 대회타이기록으로 2위를 했고, 창던지기에서도 양정의 마종국이 46m 50으로 대회신기록을 작성했고, 배재의 노한진이 46m 15로 대회타이기록을 하며 2위를 하며 치열한 기록 경쟁이 벌어졌다. 김유택이 이끈 배재 팀은 4×100m 릴레이에서 45초 2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했다. 그 밖에 800m 김종식(양정) 2분 8초 8, 세단뛰기 김시황(배재) 13m 50 모두 대회신기록이었다. 그러나 연희전문 주최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는 1937년 제15회 대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1920년 이후 열린 육상경기대회 가운데에는 한두 번 개최하고 그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대회는 매년 열려 해당 종목의 보급과 대중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⁰¹²

조선체육회 주최 전조선육상경기대회

1920년 7월 13일에 창립한 조선체육회의 첫 사업은 1920년 11월 4~6일까지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열린 전조선야구대회였다. 오늘날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는 이 대회를 통산 회수의 기점으로 삼고 있다. 이듬해인 1921년 2월 11일에 같은 장소에서 제1회 전조선축구대회를 개최했고, 그해 10월 전조선정구대회를 개최했다.⁰¹³

전국 규모의 육상경기대회인 전조선육상경기대회는 1924년에서야 열렸다. 그 사이에 조선체육회는 본격적인 육상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1923년 7월 4일 제4회 정기총회에서 육상경기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육상경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연구위원은 허성, 서병의, 원달호, 강낙원, 이중국이었고, 고문으로 김동철이 선임됐다. 이 위원회의 연구 결과는 1924년 5월 10일 원달호에 의해 《육상경기규칙》으로 편찬됐고, 영국 옥스퍼드대 킹스 칼리지 출신의 축구인이자 육상경기에 조예가 깊었던 서병희와 함께 영문과 일문으로 번역했다.⁰¹⁴

아울러 조선체육회는 육상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 정비에 나섰다. 여러 대회를 주최하면서 모은 수익금 가운데 5000원을 들여 허들 기구와 투척 종목 기구 등을 구입했다. 또 휘문고보 운동장 한가운데에 100m 직선코스를 긋고,

⁰¹² 김봉섭 논문, 2003, p55~58

⁰¹³ 동아일보, 1972년 10월 3일자.

⁰¹⁴ 이호의 논문, 2003, p114

둘레에 333m 트랙을 만들었다. 이 트랙과 코스는 서병희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⁰¹⁵

조선체육회는 창립 이후 각종 경비와 유지비를 기부금, 회비, 대회 입장료 등으로 충당해 왔다.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이 있으며, 회비는 매달 50전, 연간 3원이며 그 밖에 유지회원 제도를 두고 연 10원씩 받았다.

근대식 시설이 갖춰진 뒤 조선체육회가 개최한 최초의 육상경기는 1924년 6월 14~15일에 열린 제1회 전조선육상경기대회였다. 이 대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당시의 신문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이번에 열리는 육상경기대회는 다른 대운동회와 같이 어떠한 한 두 가지 부분적 운동이 아니라 실로 모든 운동을 모아 대성하여 놓은 조직적 운동이라 더욱이 이후부터는 조선인의 운동계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요, 극동올림픽이나 세계올림픽이니 하는 중대한 화합을 앞에 두고 있는지라 장래 세계 운동회에 참가하여 영광의 월계관을 얻으려는 선수는 미리부터 이 대회에 참가하여 재주를 단련하라, 용기를 단련하라……’⁰¹⁶

1924년 6월 14~15일 양일간 휘문고보 운동장에서 제1회 전조선육상경기대회가 열렸다. 100m, 200m, 400m, 800m, 1500m, 5000m와 로드 레이스, 높이뛰기, 창던지기 등 18개 종목으로 치러졌고 참가 인원은 400명 규모였다. 참가 단체는 양정고보, 청년학관, 경성상업, 협성실업, 제2고보, 보성전문, 중앙고

⁰¹⁵ 김상구, 전국체육대회의 발전 과정을 통해 본 체육사적 의의, 부경대 대학원 체육교육 석사논문, 2007, p16.

⁰¹⁶ 동아일보 1924년 6월 3일자

⁰¹⁷ 정희준, 2009, p35~39.

1920년대 단거리 스타, 만능 스포츠맨 이영민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기념사진. 왼쪽이 이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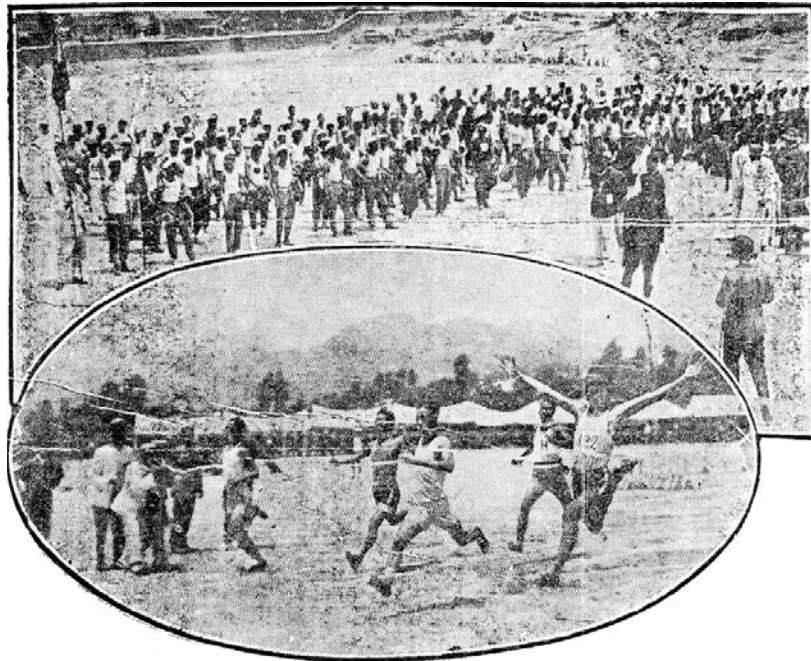
1922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들이 조선을 방문해 친선 경기를 벌인 일대 사건이 있었다. 원래 도쿄와 상하이에서 경기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야구선수 출신으로 조선체육회 이사가 된 이원용이 일본에 건너가 협상을 해서 하루 일정으로 메이저리거들을 조선에 데리고 온 것이다.

그해 12월 8일 오후 서울 용산에서 메이저리그 올스타와 전조선청년회 간의 야구시합이 열렸다. 조선인은 물론 서양인까지 몰려든 이 경기는 대성공이었다. 이때 한국 운동사에 빛나는 만능 스포츠맨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선 최초의

홈런을 날린 이영민이다. 그는 1924년 대구 계성중학에서 서울 배재고보로 스카우트돼 이 땅의 스카우트 1호다. 이영민은 1926년 전조선육상경기대회 400m에서 54초 6의 신기록으로 우승했고, 이듬해인 1927년 7월 도쿄 유학생 고국방문대회 100m에서 11초 6의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다시 해를 넘긴 1928년 6월 23일 전조선육상경기대회 200m에서 23초 6의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영민은 단거리 육상경기 선수일 뿐 아니라 야구와 축구선수로도 맹활약했다. 1928년 연희전문 시절, 경성운동장에서 열린 경성의학전문과의 경기에서 미루나무들이 늘어선 외야로 공을 넘겨 경성운동장의 첫 홈런을 장식했다.

축구에도 소질이 있어 1933년 경성축구단이 창단하자 선수로 뛰기도 했다. 만능 선수였던 이영민은 조선 최초의 스포츠 스타 중 한 명으로 수많은 여성팬을 몰고 다녔다. 엘리트에다 최첨단 문물인 야구선수였고 장쾌한 홈런을 날리는 남자였다. 장안의 호남아였던 그는 경성 갑부의 딸이었던 이화여전 출신의 정구선수 이보배와 결혼한다. 이 역시 이 땅의 첫 스포츠 스타 커플이었다.⁰¹⁷이영민은 1954년에 세상을 떠났다.



1924년 6월 14일 제1회 전조선육상경기대회 개막식(위)과 경기 장면.
동아일보 1924년 6월 15일자 게재 사진.

보, 동래고보, 휘문고보, 배재고보 등 다들 쟁쟁한 팀이었다. 여기에 은행원, 상인들까지 대거 참여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선수들은 상견례를 했다. 폐막식에는 줄다리기 한판으로 흥을 돋우는 이채로운 관례도 만들었다. 휘문고 설립자 민영휘가 계동궁의 절반을 사들여 만든 운동장 주변에는 너도나도 구경 나온 사람들로 야단법석이었다.

각 학교의 응원전은 4×200m 및 4×400m 릴레이에서 절정에 달했다. 4×200m 릴레이에서는 양정, 휘문, 배재가 나란히 1, 2, 3등을 했고, 4×400m 릴레이에서는 양정, 배재, 휘문 순으로 2, 3위가 바뀌며 학교마다 경쟁이 치열했다.

남자 100m와 200m에서는 승실의 최응천이 12초와 25초 2로 우승했다. 이 기

록은 같은 해 열린 제8회 파리 올림픽대회의 100m 10초 6, 200m 21초 6에 비해 한참 뒤쳐진 것이었다. 5000m에서는 양정의 김희천이 17분 43초 8로 우승했다. 당시 세계기록은 파리 올림픽대회에서 우승한 핀란드의 파보 누루미가 세운 14분 31초 2였다.

그러나 전조선육상경기대회의 참가를 위해 연습 도중 선수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대회가 열리기 사흘 전인 1924년 6월 11일 양정고보 교정에서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좁은 운동장에서 여러 종목이 연습을 하다 보니 창이나 원반이 날아다닐 때는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나라 스포츠 사상 첫 희생자가 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3학년인 한세열과 동급생인 김두환이 함께 운동장 양편에 마주서서 창던지기를 하고 있었다. 두 개의 창을 서로 던지고 주고받으며 연습을 계속했다.

그런데 땅바닥에서 창을 줍고 있던 한세열이 김두환이 던진 창이 자신에게 날아오고 있는 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이 창이 그만 한세열의 가슴에 꽂혔고 한 선수는 자기 손으로 그 창을 뽑았으나 곧 의식을 잃고 숨졌다. 이로 인해 양정고보 선수들은 대회에 참가하느냐 마느냐로 의견이 분분했으나 결국 참가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창던지기에 참가한 이종원이 우승을 하여 희생자의 넋을 달랬다.⁰¹⁸

1925년 6월 25일 훈련원 대운동장에서 제2회 전조선육상경기대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선수만 251명에 달했는데 주최 측인 조선체육회는 세계 올림픽대회의 경기방식을 따른 육상경기의 모범이라고 자랑했다. 축포 3발로

⁰¹⁸ 경향신문, 1978년 3월 3일자.

대회 시작을 알린 개막식에서 경성방직 후원으로 초청된 비행사 이기연이 1시간가량 축하비행을 하기도 했다.

1926년 제2회 전조선육상경기대회의 기록을 보면 16마일 마라톤에서는 김수옥(고등공업)이 1시간 55분 3초로 우승했고, 100m와 200m에서는 강도일(제2고보), 800m 릴레이에서는 송도고보, 1600m 릴레이에서는 양정고보가 각각 우승했다. 그 밖에 새로운 기록을 달성한 종목으로 800m 박효달 2분(일본기록 2분 12초 6, 극동올림픽 기록 2분 1초 7), 200m 강도일 23초 5분의2(일본기록 25초), 200m 저허들 김영희 29초 5분의 1(일본기록 32초), 100m 강도일 11초 5분 4(일본기록 11초 8분) 등이다. 일일이 국내기록과 일본기록을 비교하고, 새로운 기록 달성에 의미를 부여한 것을 통해 1920년대 초 국내 스포츠계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전조선육상경기대회는 1926년, 1927년, 1931년에 예산 관계로 연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1933년까지 해마다 열렸다. 제3회 대회는 3년 만인 1928년 6월 23일 열렸는데 이 대회부터 '학동부'를 신설했고 신기록도 속출했다. 일반부 5000m에서 정관순이 16분 52초 2(조선신기록), 멀리뛰기에서 전용길6m 40(조선신기록), 110m 허들 전용길 18초(대회신기록), 800m 릴레이에서 양정고보팀이 1분 40초 8(대회신기록), 4×400m 릴레이에서도 양정고보팀이 3분 48초(대회신기록), 1500m 정상희 4분 37초 2(대회신기록), 높이뛰기 엄홍섭 1m 56(대회신기록), 장대높이뛰기 민태욱 3m 16(대회신기록), 세단뛰기는 양원문이 12m 35를 포함해 1, 2, 3위까지 모두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전조선경기대회 시작되다

1929년 창립 10주년을 맞은 조선체육회는 경기 운영방식을 바꿔서 야구대회, 정구대회, 육상경기대회를 따로따로 3일씩 진행하지 않고 3일 동안 한꺼번에



1934년 200m 레이스에서 22초 6의 한국신기록을 세웠던 이을형. 1964년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 시절 모습.

진행하는 이른바 3종 종합경기를 하기로 했다. 이것이 제10회 전조선경기대회(회수는 축구대회 기준)다. 당시 언론은 “이로써 확실한 올림픽이라 일컬을 조선 최초의 경기가 진행되는 셈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 대회에서 육상 경기는 선수 1인 당 3종목으로 참가를 제한하되 릴레이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1932년 10월 제8회 전조선육상경기대회는 조선체육회와 고려육상경기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 대회에서 1만m 달리기, 해머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멀리뛰기 등 5개 종목에서 대회신기록이 작성되었다. 특히 남승룡은 5000m 16분 55초 2와 1만m 34분 45초(대회신기록)에서 2관왕에 올랐고, '투척왕'으로 불리던 유약한은 포환던지기 11m 54, 원반던지기 39m 4(대회신기록), 창던지기 50m 20(대회신기록)에서 3관왕에 올랐다. 단거리에서 이을형의 활약도 눈에 띈다. 100m 최인호 12초, 200m 김인식 24초 1로 각각 1위를 했으나 2위는 모두 이을형이었고, 이을형은 4×200m 릴레이에서 1위를 하고 멀리뛰기에서도 5m 91의 기록으로 1위를 했다. 제9회 대회는 1933년 6월 24일 경성운동장에서 열렸는데 6개의 대회신기록을 쏟아냈다. 변용환이 1500m에서 4

분 21초, 손기정은 800m에 참가해 2분 4초 2로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조선체육회는 1934년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11월 1일부터 4일간 전조선종합경기대회를 열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날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의 전신이다.⁰¹⁹ 전조선종합경기대회는 육상경기, 야구, 정구, 농구, 축구 5개 종목에서 승부를 펼쳤다.

일본 측 조선체육협회가 주최한 대회

일본인 중심의 조선체육협회는 1920년 첫 봄철 육상경기대회 이후 매년 자체 육상경기대회와 극동올림픽·만국올림픽·만선대선수권대회(만주·조선·대만의 경기) 예선과 조선신궁대회를 주최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조선체육협회 주최 육상경기대회가 육상대경기회, 춘계육상경기회, 육상운동경기대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최된 데다 시기도 일정치 않았다.

1922년 4월 9일 조선체육협회 주최 제3회 육상경기운동회에서 공업전습소 생도 김수옥이 10마일(약 16km)을 1시간 3분 17초에 들어와 3위를 했다. 당시 1위는 서른한 살의 일본인 미네기시로 기록은 1시간 49초 20이었다. 김수옥은 4년 뒤인 1926년 경성고등공업학교 학생으로 조선체육회 주최 전조선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해 16마일(약 25.6km) 경주에서 1시간 55분 3초로 1위를 했다.

우리 손으로 세운 조선체육회와 경쟁을 해온 조선체육협회는 1931년 조선육상경기연맹의 설립을 시작으로 각 경기 종류 별 연맹 체제로 전환했다.

일제 강점기 체육행사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체육데이'다. 총독부는 체육의

⁰¹⁹ 김세호, 한국 육상경기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마라톤 경기를 중심으로-신라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p14.

보급 발달을 목적으로 매년 10월 1일(종래 11월 3일에 열리던 것을 1926년부터 변경)을 '조선체육데이'로 지정하고, 2~3일 동안 각 지역 단위로 학생, 청년단, 일반인이 한자리에 모여 야구, 정구, 육상경기(트랙·필드) 대회를 열도록 했다. 1924년 경성부는 11월 3일 체육데이를 맞아 경성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트랙과 필드에서는 학생들의 연합체조 및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야구장에서는 경성 내 중등학교에서 4팀을 선발하여 경기를 하고, 정구장에서는 여자중등학교 대표 시합을 열었다. 1929년 제6회 체육데이에 용산보통학교의 오주영이 200m를 26초 3로 주파해 조선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학교 대항전 대유행

1920년대 학교 대항 육상경기가 큰 인기를 얻자 1927년 용산철도국이 용산철도 트랙에서 제1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를 개최했고, 1928년 8월 조선체육협회도 전조선중등교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첫 대회는 100m를 제외한 트랙 7종목에서 모두 조선인이 1위를 했고, 필드에서는 포환던지기에서 1, 2, 3위와 창던지기에서 1, 2위를 조선인이 차지했다. 일본 측 조선체육협회가 주최한 대회인 만큼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작용했고, 당시 국내 신문 보도를 보면 조선 학생들의 성적이 뛰어난 것을 강조하며 통쾌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회는 혹서의 8월에 열려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선수가 속출했고 기록도 저조한 편이었다. 1930년에 열린 제3회 대회에서는 양정의 유해봉 선수가 1만m에 참가했다가 쓰러졌고, 1931년 제4회 대회 때는 비로 인해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4회 대회에는 양정, 배재, 휘문, 동성, 제일고, 제이고와 지방의 경성고보, 해주고보, 의주농업, 경성농업학교 등이 참가했다. 경기 결과 의주농업학교의 김형집이 100m 12초, 200m 25초로

각각 1위를 하고, 양정의 김정복이 400m에서 58초, 같은 양정의 김은배가 5000m에서 18분 15초 8로 1위를 했다.

1932년 제4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의주농업의 김형집이 200m 24초로 자신의 기록을 단축하며 1위를 했고, 같은 학교 김의화는 1500m에서 4분 22초 2로 양정의 유해봉을 제친 데 이어 5000m에서 16분 47초 2로 1위를 했다. 양정은 4×400 릴레이 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 무렵 경성고등상업학교 주최의 학교 대항전인 중등학교육상경기대교對校 선수권대회도 시작되었다. 1928년 6월 17일 경성운동장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에서 경성사범학교가 우승을 했는데, 특히 높이뛰기에서 경성사범의 장운천이 같은 경성사범의 미우라와 나란히 1m75를 넘어 조선신기록을 세웠다. 1929년 제3회 대회 때에는 1500m에서 지계선(4분 24초 8)이 조선신기록을 작성했다. 1931년 제5회 대회 참가 학교를 보면 경성상업 외에 경성사범, 의주상업학교, 중앙고보, 인천남상, 진남포상업, 대구고보, 경기상업, 철도학교, 동성상업, 경성상업, 협성실업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등 지역 학교의 참가가 눈에 띄나 매년 경성사범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 무렵 경성사범의 권혁조가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 대회에서는 110m 허들에서 19초로 1위를 했고, 한 달 뒤 열린 조선체육협회 주최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선수권대회 창던지기에서 39m 96으로 1위를 했다.

1932년 제6회 중등학교육상경기대교선수권대회에서 양정의 유해봉이 1500m에서 4분 17초 4로 1위를 했는데 이 기록은 일본 중학생 최고기록 4분 18초 8을 크게 앞선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1933년 제7회 대회에서도 양정이 경성사범을 물리치고 우승해 6연패를 달성했다. 양정은 김종원이 400m에서 53초, 포환던지기 12m 335로 각각 대회신기록을 수립했고 4×100m 릴레이에서도 양정팀이 46초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1위를 했다. 손기정은 1500m와 5000m에서 1위를 차지했다. 양정은 1934년 일본학생육상경기연합 주최 제20

회 전일본중등학교대교선수권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한 데 이어 이듬해 열린 21회 대회에서 2연패에 성공해 조선의 명예를 드높였다.

그러나 경성고등상업학교 주최의 중등학교육상경기대교선수권대회는 1934년부터 조선학생육상경기연맹 주최로 이관되었다. 주최가 바뀐 뒤 두 번째 대회가 열린 1935년 7월, 제일고보·해주고보·평양고보가 참가해 육상경기 명문 양정의 뒤를 바짝 추격했으나 양정의 벽은 높았다. 특히 이 대회에서 양정의 마중국은 멀리뛰기에서 6m 60, 세단뛰기 13m 28, 포환던지기 13m 06, 창던지기 46m 06 등 필드 종목을 휩쓸었을 뿐 아니라 4×100m 릴레이에도 양정팀으로 참가해 1위를 하는 등 대회 최고의 스타가 되었다. 단거리는 양정의 김극환과 제일고보의 이영민(배재고 출신 이영민과 동명이인)이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여 100m는 김극환이 11초 3를 기록하고, 200m는 이영민이 23초를 기록하며 우승을 나누어 가졌다. 두 종목 모두 1, 2위까지 대회신기록이었다. 양정의 손기정은 800m, 1500m, 5000m 3종목에 참가해 5000m에서 1위를 했다.

1936년 제3회 대회는 손기정 등 양정 주전들이 베를린 올림픽대회를 위해 불참한 가운데에도 양정이 우승을 했고, 영변의 승덕고보가 약진하며 2위를 거머쥐었다. 배재는 3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1937년 제4회 대회에서 절치부심한 배재고보가 1위로 올라섰다. 배재는 여세를 몰아 그해 제23회 전일본중등학교대교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일본 각지에서 온 145개 학교를 물리치고 당당히 종합 우승을 했다. 1938년 제24회 전일본중등학교대교선수권대회에서도 배재는 2연패에 성공했다. 1938년 제5회 중등학교육상경기대교선수권대회에서는 양정과 배재가 1위를 놓고 싸우는 사이에 평양의 광성고보가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6

지역 체육단체의
활성화

1925년 대학 예과와 관립전문학교 등 6개 학교가 대학 예과전문학교체육연맹을 조직하고 6개 학교끼리 야구, 정구, 육상경기, 검도, 유도 등 5개 대회를 매년 열어왔다. 그러나 조선인들이 선호하는 축구가 제외되자 관립전문학교 측은 민간전문학교와 함께 전조선전문학교축구연맹을 만들고 1926년 첫 대회를 치렀다. 1927년에도 대회를 개최하려 하자 대학예과전문학교체육연맹 이사회가 돌연 “다른 단체의 운동대회에는 절대 출전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이라며 사실상 참가를 금지시키자 비난 여론이 일었다.

조선전문학교체육연맹 주최의 육상경기대회는 1926년 처음 개최되었고, 1930년 제5회 대회에서는 경성고등공업학교가, 1931년 제6회 대회에는 경성고등상업학교가 우승을 했다. 1930년 11월 15일에는 경성운동장에서 사립전문학교육상경기연맹이 주최하고 조선일보사가 후원하는 제1회 육상경기대회가 열렸다.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약학전문학교 3개 학교가 참가했고, 심판은 고려육상경기회가 맡았다.

1932년 3월 경성육상경기연맹이 결성돼, 매년 경성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대회는 3부제로 1부는 일반인, 2부는 대학과 전문학교, 3부는

중등학교로 나누어 진행했다. 경성부윤京城付尹이 연맹 회장직을 맡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제 단체로 총독부와 철도국 및 부내 각 학교가 소속됐는데, 관립전문학교체육연맹과의 위상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1935년 제4회 경성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양정, 제일고보, 경성상업이 나란히 1, 2, 3위를 했다. 1936년 제5회 대회에서는 육상경기 신홍 명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일고보가 총득점에서 양정을 물리치는 이변이 일어났다.

그 밖에 경성육상경기연맹은 1932년 6월 19일 제1회 시내중학교학년급대항 육상경기대회를, 10월 23일에는 대학전문학교대항육상경기대회를 열었다.

경성육상경기연맹은 1933년 경성제대와 경성제대 예과 고상, 고공, 경의전, 법전, 약전, 치전 및 고농, 평양의전, 대구의전, 등 12개 학교의 육상경기부를 주축으로 조선학생육상경기연맹을 창립해 이 단체를 일본학생육상경기연합 산하에 둬으로써 조선학생육상경기계의 통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1934년에는 경기도육상경기협회 주최로 경기도내 남녀중등학교대항육상경기대회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1937년 6월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경성운동장에서 연습 도중 대형 사고가 터졌다. 필드에서 해머던지기를 하던 배재의 인강환이 넘어지면서 놓친 해머가 날아가 트랙에서 단거리 연습 중이던 경성여고의 이영순과 김영자에게 맞은 것이다. 특히 뒷머리를 다친 이영순은 한때 위독한 상황이었으나 극적으로 회복되었다. 이영순은 뛰어난 단거리 선수였고, 인강환 역시 1936년 전일본육상경기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한 인재여서 당시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의 안타깝게 했다. 육상경기대회가 크게 늘어나고 그 열기가 과열되는 가운데 빚어진 사고였다.

지역·단체 중심 연례 체육대회 개최

1920년대에는 일본 측 조선체육협회와 우리 측 조선체육회가 경쟁적으로 대

회를 주최하면서 육상경기의 수준과 인기가 날로 높아졌다. 또 이들 단체 외에 각 지역의 군 단위 학교, 학생회, 청년회, 친목회, 각종 조합 등이 개최하는 소규모 육상경기대회에도 수백에서 수천 명의 선수단과 수천에서 1만여 명에 이르는 관객으로 성황을 이뤘다. 이들 대회의 참가를 유도하는 안내 기사와 경기 결과가 매일 빠짐없이 신문에 보도될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1925년 6월 경성청년회 주최로 시민육상경기대회가 열린다는 안내 기사를 보면 장거리 도보경주 외에 자전거 경주와 축구, 활쏘기, 각희(택견) 등의 종목이 포함돼 있어 사실 육상경기대회라기보다 운동회에 가까웠다. 상품은 소 2마리와 광목. 실제로 이 경기는 '경성 제1회 육상경기대회'라는 명칭으로 6월 28일 당지구연병장 운동장에서 열렸는데, 경기가 펼쳐진 5종목 중 육상경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라톤(실제로는 장거리 도보경주)과 릴레이뿐이었다.

당시 개최된 지역 대회의 사정은 비슷해서 이름만 육상경기대회이지 자전거, 정구, 축구, 활쏘기, 택견 경기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대회마다 빠지지 않는 종목이 장거리 달리기(흔히 마라톤이라고 했음)와 자전거 경주였다. 그래서인지 대회 명칭을 육상경기운동대회라고 어정쩡하게 붙인 경우도 있다. 당시만 해도 육상경기의 개념과 종목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평양에 근거지를 둔 관서체육회(회장 조만식)의 활동은 차원이 달랐다. 1924년에 창립된 관서체육회는 당시 경성의 조선체육회와 함께 조선 스포츠계의 쌍벽을 이루는 단체로 성장했다. 연례행사로 전조선빙상경기대회, 전조선축구대회, 전조선씨름대회, 전조선수상경기대회, 서조선야구대회, 관서체육회체육대회, 전평양농구연맹전, 전조선탁구대회 등을 개최했다. 그 밖에도 일반에게 보건체조를 보급하는 동명체조단을 운영했다.

관서체육회 주최 행사 중 육상경기로 주목할 것은 관서종합체육대회(또는 종합경기대회)였다. 1931년 10월 17일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제1회 관서체육대회

가 열렸다. 첫 대회에는 5개 학교가 참가했고 경성에서 원정 온 양정이 우승, 신의주상업이 2위를 했다. 특히 양정의 남승룡은 1만m에서 34분 56초 2로 우승을 했다.

1932년 2회 대회부터 참가 학교가 10개로 늘고, 육상경기 참가 선수만 115명에 이르는 등 그 열기가 고조되었다. 제2회 관서체육대회도 양정의 독무대였다. 이을형이 100m 11초 3, 200m 25초로 각각 1위를 했고, 400m에서는 김종원이 55초 1로 1위, 안영재가 2위를 했으며, 800m 김세희가 2분 14초 4, 1500m 김은배 4분 41초 3, 5000m 남승룡 18분 07초, 4×100m·4×200m 릴레이 1위도 모두 양정의 차지였다. 필드 종목에서 양정은 포환던지기 김종원 11m 38, 높이뛰기 이병욱 1m 61, 멀리뛰기 이을형 6m 15, 세단뛰기 박상만 12m 01, 창던지기 한중흙 38m 80이 각각 1위를 하며 2위를 큰 점수 차로 누르고 종합 우승을 했다. 1933년 제3회 대회까지 양정이 3연속 종합 우승을 했다.

1934년 제4회 관서체육대회도 수천 명의 관중이 몰려든 가운데 지역 여학교가 총동원되는 등 성황을 이뤘고, 특히 중등학교 육상경기에서는 송실의 박영준이 맹활약을 해서 100m 11초 7, 멀리뛰기 5m 32, 세단뛰기 12m 68로 3관왕이 되었다.

1935년 제5회 관서체육대회 육상경기의 기록은 더욱 향상되었다. 중학부 경기에서 김유택이 100m 11초 1, 200m 24초 1로 모두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했다. 멀리뛰기에서는 박영준이 6m 24, 세단뛰기에서는 나약성이 13m로 각각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그러나 각종 체육 활동에 대한 일본의 통제가 심화되던 1940년 9월 25일 관서체육회가 해산되면서 매년 평양에서 열리던 전조선축구대회는 조선축구협회 평남지부가 인수해 주최하게 되었다.

서울육상경기연맹 창립

지역 체육단체가 활성화되고 각종 대회가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 무렵 '전 조선^{全朝鮮}'을 내건 단체와 대회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는 1934년 1월 26일자에 '전 조선 체육단체에 고향'이라는 사설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내용의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본사 조사에 의하면 전 조선 도처에 체육을 장려하려는 목적 하에 설립된 체육단체가 없는 곳이 없다. 그러나 슬픈 일로는 이 수백 단체들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산산히 나뉘어 있는 일이다. ……현금 조선 스포츠계의 모양을 둘러보면 '전 조선대회'가 너무나 남발이 되지 않는가 하는 감이 있다. 겨우 일군^{一郡}, 넓어야 일도^{一道} 짬을 망라하는 운동회에서도 명칭만은 보기 좋게 전 조선을 붙인다. 이 같은 일은 결코 기세를 올리는 일이 아니라 조선 스포츠계의 무통일, 무질서를 폭로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조선 스포츠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우리는 조선체육단체의 통일기관 형성을 제창하는 바이다. 조선체육회, 관서체육회, 황해도체육연맹, 부산체육연맹 등을 위시하여 전 조선에 널리 있는 각 체육단체 앞에 삼가 이 글을 드리는 바이다.

1934년 4월 2일 육상경기의 보급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서울육상경기연맹 창립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유약한 선수를 필두로 최인호, 백규복, 김종, 오정근, 조인상, 김은배, 김환민, 유해봉, 이길용 등이 서울육상경기연맹을 창립해 여운형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서울육상경기연맹은 조선의 육상경기계를 실질적으로 통일하고자 고려육상경기회에 단체회원으로 가맹하는 동시에 개성 등 각지에 결성된 관련 단체들을 독려하여 조선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 단체의

규약에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육상경기 지도 △연습회 및 기록회 △경성선수권대회 연 1회 개최 △대외 경기 등이다. 서울육상경기연맹 창립 총회는 1934년 4월 30일에 열렸다. 이에 자극 받아 개성에서도 연맹 창립 운동이 일어났다. 1934년 5월 12일 제12회 전개성육상경기대회를 계기로 개성육상경기연맹 발기회를 연 것. 이들은 고려육상경기협회에 가맹하며 서울육상경기연맹과 조직을 같이 하고 종래 시민대운동회를 육상경기대회로 바꾸는 것 등을 결의하고 5월 24일 연맹 창립 총회를 열었다.

1934년 6월 30일 서울육상경기연맹 후원으로 라이벌인 양정 대 배재 3학년 이하 대항 육상경기대회가 열렸다. 이를 조선 중등학교 간 대항경기의 효시로 꼽히기도 한다.

서울육상경기연맹의 주요 행사 중 하나가 A마라톤이었다. 연맹은 마라톤 보급과 기초 실력 강화를 위해 1935년부터 매일 말 토요일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부터 한강 전차 종점을 왕복하는 8마일 마라톤을 개최했다. 단순히 대회를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김은배, 조인상, 백규복, 최인호, 유해봉 등을 초청해 연습 방법과 힘의 분배, 자세 등을 가르치는 지도회를 열어 마라톤의 기초를 쌓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손기정, 남승룡 선수가 1,3위를 하는 쾌거가 있었다. 동아일보 1936년 8월 12일자 '철혈의 전통적 피와 힘, 양웅^{兩雄}을 양성한 각 단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이와 같은 대목이 나온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양군의 배후에 숨은 조선의 가진 바 커다란 기둥을 아니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우리의 전통에서 받은 피와 힘으로 오늘이 있도록 하여준 그 위대한 '파트론(후원자)'을 찾자면 '조선체육회'가 있고, '서울육상경기연맹'이 있고, '고려육상경기회'가 있고 그리고 '연전^{延專}중등육상경기'가 있고 양군을 길러준 양정고보

가 있는 것이다.

서울육상경기연맹은 1937년 조선 최초로 크로스컨트리 대회(산야횡단경주)를 열기도 했다.

원정 경기와 해외파의 활약

육상경기에서 조선 선수들의 기량이 일취월장하고 일부 종목에서는 일본 기록을 추월하는 수준에 이르자 조선 대 일본 또는 조선 대 만주와 같은 각종 대항전이 생겨났다. 조선에서 예선을 치른 뒤 일본으로 원정을 가서 본선을 치르는 경우도 많았는데 당시에는 원정遠征 대신 외정外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 것이 눈에 띈다.

‘선만鮮滿대항전’이라 불리는 조선 만주 대항 육상경기대회는 1924년부터 시작되었다. 일본 측 조선체육협회와 만주체육협회가 공동주최한 이 대회는 극동 올림픽대회와 1년 걸러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선체육협회는 국내 예선 대회를 거쳐 선수를 선발했다. 1924년 만주에서 열린 제1회 대회에 조선팀으로는 문판개, 김한태, 김수옥, 김경치, 강찬격, 강도일, 최응천, 최경락 등 8명이 참가했으나 만주 팀이 승리했다. 1926년 경성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에는 김영악, 김한태, 강찬격, 문판개, 민태욱, 이인봉, 권정규, 황대선, 박기평, 유약한, 최경락 등 11명이 참가해 역시 만주팀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대회 경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중단되었다가 1931년 철도국과 총독부 육상경기부가 합쳐져 전총독부 육상경기구락부가 만들어진 것을 계기로 전 만철全滿鐵과 전경성全京城 대항전이란 명칭으로 부활돼 제3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경성팀이지만 평양 선수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전 조선을 대표하며, 만철 역시 전 만주를 대표했다고 한다(동아일보 1931년 8월 21일자). 3차 대회는 예

선전을 거치지 않고 추천으로 참가선수를 결정했는데 조선인으로는 김장률 단장 이하 김은배, 백규복, 유약한, 광석근, 변용환, 이준갑, 최경락 등 8명이었다. 1936년 제4회 조선만주대항육상경기대회는 경성에서 열려 조선 대표로 나선 유장춘이 1500m 4분 14초, 5000m 15분 42초 8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활약을 펼쳤다.

이후 일제의 ‘스포츠 통제’ 정책에 따라 각 경기단체가 조선체육협회 산하로 들어감에 따라 1938년부터 각종 경기 부문을 합쳐 조선만주대항종합경기대회가 열렸다.

흥미로운 사실로 1929년 10월 17일 경성운동장에서 조선·일본·독일 국제육상경기대회가 열려 남녀 100m에서 모두 세계신기록이 나왔다는 것이다. 당시 신문 보도를 보면 이는 조선 육상경기계 초유의 국제대회로, 멀리 독일과 가까이 일본 선수가 내한하여 조선에 있는 조선인과 일본인 중 우수 기록을 가진 남녀를 선발해 경기를 벌였다. 당일 관중이 10만 명에 달했고 1300여 명의 여학생이 동원돼 환영 노래와 매스게임을 한 뒤 경기가 진행되었다. 남자 100m에서는 독일의 엘드라헬이 10초 3(종전기록 10초 4)의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했고 여자 100m에서는 일본의 히토미가 12초(종전기록 12초 2)로 역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한국인은 남자부에서 100m 김장률, 1500m 백규복, 3000m 변용환·백규복·광석근, 고허들 김환민, 창던지기 노승현, 원반던지기 유약한, 여자부에서는 100m와 멀리뛰기 조경순 등이다. 결과는 3000m에서 변용환과 광석근이 3, 4위를 했다.

이 시기 해외 유학생들의 경기 결과도 빠짐없이 보도되었다. 특히 일본과 중국 유학생들의 활약상이 자주 소개되었다. 1925년 6월에는 상하이에 있는 통지(同濟)대학이 자체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해 조선인 유학생 김상각이 100m, 200m, 400m와 110m 허들, 200m 허들, 장대높이뛰기에서 모두 1위를 해 종합 1위를 했다는 소식을 상하이 발 기사로 전하기도 했다. 재일본동경조선기독교

교청년회에서도 매년 가을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일제강점기 한국 체육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중국으로 건너가 활동한 조선 선수들이다. 동아일보 1934년 7월 11일자에 용정 은진중학 이순덕이 쓴 ‘간도 체육의 근황을 소개함’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여기서 간도의 체육 열기와 수준에 대해 “참가단체가 십여 단체인데 국제경기의 감이 농후하여 매우 흥미 있는 게임을 할 뿐 아니라 개인 기술에 있어서는 특히 만주인측 선수 중에는 극동올림픽대회에 출전하려던 선수도 가입할 뿐 아니라 각 중국 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이어서 일본이나 조선에서 보지 못하는 묘기를 연출하고 관람자도 인산인해를 이루어...”라고 적고 있다.

1927년에는 조선체육회 주최로 도쿄 유학생 환영 경기회가 열려 도쿄 유학생팀과 경성 학생팀 간에 축구와 육상경기가 펼쳐졌다. 육상경기 부문을 보면 도쿄 유학생팀으로 참가한 권태하가 1500m에서 4분 26초 2로 1위를 했고, 경성팀의 이영민은 100m 11초 6, 400m 55초, 4×200m 38초 6으로 3종목에서 1위를 했다. 유약한도 도쿄 유학생팀으로 나와 원반던지기에서 35m 95로 1위를 했다. 이 대항전은 1927년에도 열려 경성팀으로 참가한 최경락이 5000m에서 16분 42초로 조선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단체전에서도 경성팀이 승리했다.

구기 종목 못지 않은 육상경기의 인기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조선의 육상경기는 괄목한 만한 성장을 했다. 1927년까지 종래 일본인이 차지했던 14개의 조선기록 중 7개를 조선인이 새로 작성한 것이 그 증거다. 육상경기의 인기가 구기 종목 못지 않게 높아지자 대회 수도 크게 늘었다.

1930년 3월 조선체육협회가 1929년 말까지의 기록을 토대로 발표한 남녀육상경기 조선기록을 보면 남자부는 22개 종목 중 5개, 여자부는 7개 종목 중 3개가

조선인이 세운 것이었다. 이 무렵 남자부에서는 1500m의 백규복, 5000m 변용환, 1만m의 김은배, 마라톤의 이성근이 활약하고 있었고, 여자부에서는 현금녀를 중심으로 한 평양여고보가 각종 대회를 휩쓸었다. 그러나 일본기록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크게 뒤진 상태였다. 조선 최고라 해도 일본에 가면 잘해야 4위였다.

전일본육상경기연맹은 1929년부터 매년 연말 일본학생육상경기연합 및 각 가맹단체들이 주최한 경기 결과를 모아 공인 기록과 함께 각 종목별 ‘10결’을 발표했다. 첫해에는 조선인이 한 명도 들지 못했다. 그러나 이듬해 1930년 말에 가면 상황이 달라져 ‘10결’에 조선인 6명이 포함되었다.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1위 기록(팔호 안)과 일일이 비교해서 조선 선수들의 실력을 가늠케 한 것이 눈에 띈다.

1500m	10위 백규복 부산제2산업 4분 14초 6(1위 4분 06초)
5000m	4위 변용환 평양 16분 05초, 7위 권태하(1위 15분 27초 6)
1만m	4위 김은배 양정고보 33분 09초 2(1위 32분 42초 8)
원반던지기	9위 유약한 연희전문 37m 98(1위 41m 21)
창던지기	10위 노승현 광주교원 55m 10(1위 66m 42)

1930년 조선체육협회가 선수등록을 하기 시작했다. 이는 전일본육상경기연맹이 연초에 아마추어 선수의 자격을 심사해 각 가맹단체에 등록하기로 함에 따라 조선에서도 공개 경기에 출장하는 선수들에 대한 등록을 시작한 것이다. 이후로는 선수증이 없으면 연맹 가맹단체가 주최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육상경기연맹은 매년 조선인이 작성한 기록만 가지고 별도의 ‘조선기록’을 발표했는데 1937년 3월 현재 조선기록은 다음과 같다.

남자

100m 10초 7 김유택 배재 1936년 8월 20일 전일본선수권대회 예선 경성
 200m 22초 1 김유택 배재 1936년 10월 18일 전일본중등동서대항전 고시엔
 300m 37초 7 김인식 체신 1935년 10월 5일 신종목경기대회 경성
 400m 51초 5 김종원 치전 1936년 10월 16일 일반 대 학생대항전 경성
 800m 2분 02초 9 변용환 총독부 1933년 9월 23일 경성실업단대항전 경성
 이민홍 2고보 1935년 10월 20일 조선신궁경기대회 경성
 1000m 2분 47초 7 변용환 총독부 1933년 10월 1일 경성체육데이 경성
 5000m 4분 05초 0 유장춘 조선 1934년 5월 16일 극동선수권대회 마닐라
 멀리뛰기 6m 67 마종국 양정 1936년 8월 9일 학생 대 방장구락부 경성
 높이뛰기 1m 75 황대봉 경성사범 1935년 경성사범 대 체신국 경성
 장윤천 경성사범 1934년 전일본중등대항 고시엔
 장대높이뛰기 3m 60 소진남 일고 1936년 경성중등학년별 경성
 세단뛰기 14m 44 나순성 광성 1936년 전일본동서대항 고시엔
 원반던지기 36m 33 장성수 양정 1936년 경기중등대항 경성
 포환던지기 13m 114 장성수 양정 1936년 전조선중등대항 경성
 창던지기 48m 00 김종원 양정 1934년 전일본중등대항 고시엔
 해머던지기 35m 05 백승욱 양정 1936년 조선신궁경기대회 경성

여자

50m 6초 7 현금녀 평양여고 1932년 10월 16일 조선신궁경기대회 경성
 60m 8초 4 이효숙 진명 1936년 10월 16일 조선여자올림픽대회 경성
 100m 13초 1 현금녀 평양여고 1932년 10월 16일 조선신궁경기대회 경성
 200m 27초 6 강복신 평양여고 1933년 10월 16일 조선신궁경기대회 경성
 400m 1분 12초 0 김학실 평양여고 1934년 10월 2일 조선여자올림픽대회 경성

최희모 진명 1936년 10월 4일 조선여자올림픽대회 경성

800m 3분 10초 이화자 대구여고 1933년 10월 17일 조선신궁경기대회 경성
 80m 허들 14초 4 정인애 평양여고 1934년 10월 17일 조선신궁경기대회 경성
 200m 릴레이 27초 5 강복신·김덕실·길영덕·현금녀 평양여고팀 1932년 10월 2일 조선여자올림픽대회 경성
 400m 릴레이 52초 2 평양여고팀 1932년 10월 16일 조선신궁경기대회 경성
 800m 릴레이 1분 57초 6 평양여고팀 1932년 10월 2일 조선여자올림픽대회 경성
 멀리뛰기 5m 02 이의재 진명, 1934년 10월 17일 조선신궁경기대회 경성
 높이뛰기 1m 33 장정애 경성여자 1933년 10월 2일 조선여자올림픽대회 경성
 이승실 해주고녀 1936년 10월 16일 조선신궁경기대회 경성
 세단뛰기 10m 28.5 이의재 진명 1934년 7월 1일 경기선수권대회 경성
 포환던지기 8m 48 한녕빈 대구여고 1934년 10월 16일 조선신궁경기대회 경성
 원반던지기 25m 36 이추자 경성사범 1936년 10월 16일 조선신궁경기대회 경성
 창던지기 26m 27 이추자 경성사범 1935년 10월 16일 조선신궁경기대회 경성

1939년 전조선육상경기협회가 1938년 기록을 토대로 ‘육상경기 10걸’ 을 발표했는데 필드와 트랙에서 모두 조선선수가 모두 상위에 랭크되었다. 100m에서 1위 김유택 10초 8, 2위 한운섭 11초 1 등 7명이 포함돼 있고, 200m에서는 한운섭 22초 2, 김유택 22초 4 등 8명이 포함돼 있었다.

1939년 8월 10일 한신 고시엔운동장에서 제12회 조선-간사이(關西)중등육상경기대항선수권대회가 열려 100m에서 경성고상의 김유택이 10초 5로 조선신기록을 작성했다.

7

여성 육상경기대회 참가하다

1920년부터 학교체육과 운동회 등을 통해 여성의 체육 활동에 대한 관심과 가치관이 변하면서, 여성들의 각종 경기대회 참가가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 특히 기독교계 여학교에서 실시한 학교체육 장려 방침이던 운동회 및 각종 경기대회로 여성의 사회체육이라는 신개념이 도입됐고 이를 통해 근대 스포츠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

운동회에서 달리기, 뽀뛰기, 공 던지기, 그네뛰기 등을 실시해 여성에 대한 보수적 사고에 변화를 줬고 많은 관중들의 참여로 근대 스포츠 보급에도 영향을 끼쳤다. 다음은 숙명여학교 교내 운동회에 대한 동아일보 1921년 11월 24일자 보도 내용이다.

경성 수송동에 있는 숙명여학교에서는 작 이십이일 아침부터 그 학교 안에서 경기회를 개최하고 이십여 가지의 자미스러운 경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그 학교의 모 교우는 말하되 '본교에서는 이학기 초에 체조일이라 하여 체조를 한 일이 있고 금번에는 경기일이라 하여 학생 간의 경기를 하게 한 것인데 아직 연습에 불과함으로 일반 사회

에 초대장이나 안내도 한 일이 없이 소문을 듣고 오시는 손님이나 구경을 하시게 된 것이오나 차차 경기가 숙달하여지면 대대적으로 경기회를 개최하고 일반 내빈도 청하겠습니다.' 하며 사진은 대한, 소환을 의미하는 유희를 하는 광경이니 때가 마침 추운 때라 기후에도 적당한 경기이며 어린 여학생들이 천진난만하게 유희하는 광경은 이 세계 낙원을 구경하는 듯하더라.

여성을 위한 종합체육대회 열리다

1920년대까지 우리나라에는 여성 체육의 진흥을 위한 지도단체가 없어 여성 체육 발전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착안한 일본계 조선신문사가 1924년 6월 24일 훈련원 경성사범학교 운동장에서 제1회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를 개최했다. 경기 종목은 60m, 100m, 200m, 400m 달리기와 4×100m·4×200m 릴레이, 높이뛰기, 포환던지기 등이었다. 그러나 제2회 대회까지 조선 여성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보수적인 사회 풍토에서 여자가 뽀박질을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본인이 주최하는 대회라는 반일 감정도 작용했다.

그러다 1925년 9월 제3회 대회부터 조선인끼리 경기하는 2부가 마련되자 우리 선수들도 참가하기 시작했다. 또 각 선수의 점수를 합산해 단체전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어서 학교끼리 경쟁이 치열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여자학교 대항 경기의 효시다. 당시 경성여고를 비롯해 진명, 배화, 정신 등이 대회에 참가했다.

제4회 전조선여자올림픽은 1926년 10월 2일 경성운동장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육상경기 외에 농구 경기도 있었으나 선수가 없어 참가하지 못했다. 육상경기는 경성여고의 활약이 눈에 띄는 가운데 민위득이 50m 7초 10분의 7, 100m 15초 10분의 1로 1위를 하고, 4×100m 릴레이에서도 경성여고팀이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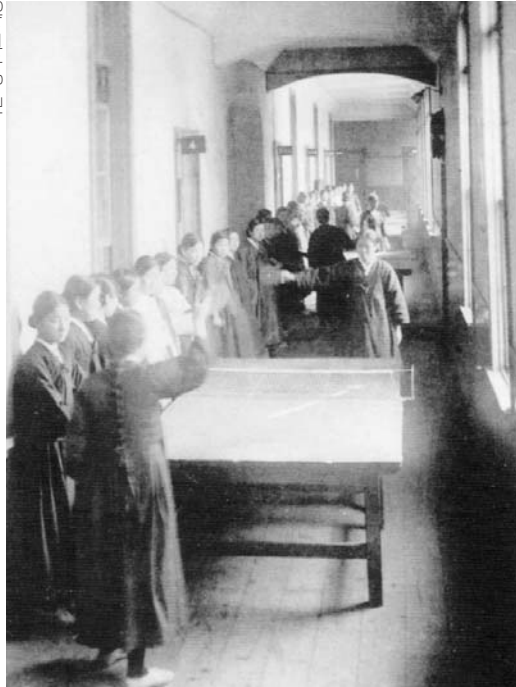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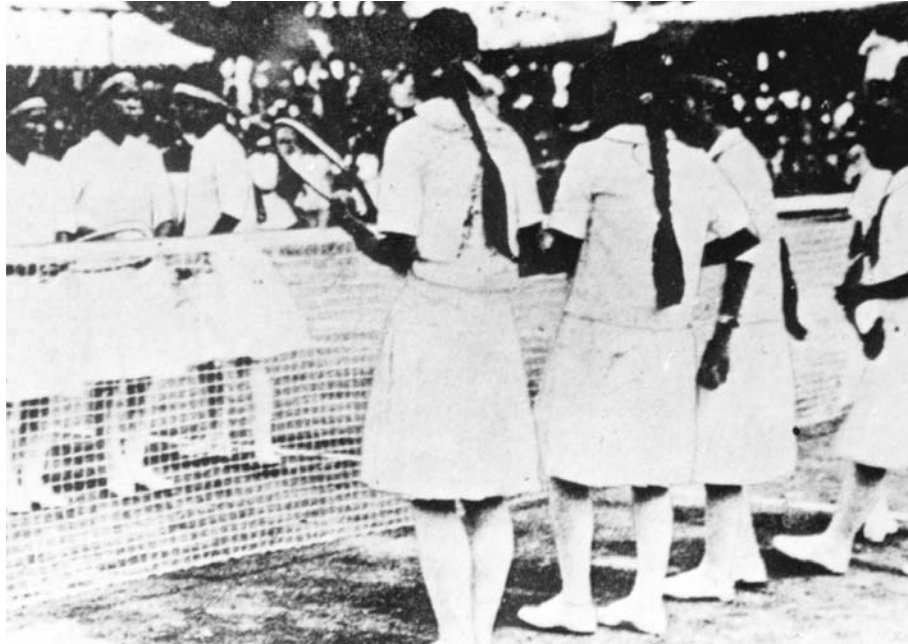


사진: 경기여고 제공

▲ 1923년 동아일보 주최로 열린 제1회 조선여자장구대회의 모습. 진명여고가 우승을 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육상경기를 비롯한 각종 경기에서 여자 선수들의 참여가 이뤄졌다.
▼ 1922년 경기여고 학생들이 머리를 땀고 한복을 입은 채 학교 복도에서 탁구를 즐기는 모습.

를 했다. 하지만 기록은 일본 선수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1927년은 여성 스포츠인들에게 뜻 깊은 해였다. 1927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여자육상경기대회위원회가 이듬해 열리는 제9회 암스테르담 올림픽 대회에 여자 선수의 참가를 허락하기로 결정한 것. 실제 암스테르담 올림픽대회에 여자 선수들은 100m, 200m, 800m, 80m 허들, 4×100m 릴레이, 원반던지기, 포환던지기, 높이뛰기, 멀리뛰기, 3종 경기(100m·높이뛰기·창던지기) 등 10개 종목에 참가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육상경기 참가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동아일보 1927년 11월 22일자 기획특집 기사 '여자의 체질에 적합한 운동경기' 편에서 육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게재돼 있다.

장애물경주라든지 고도高跳(높이뛰기) 같은 것이든지 '호스점프(세단뛰기)' 등은 강한 진동을 주게 되므로 전혀 여자 운동으로는 찬성키 어렵습니다. 체격으로 보든지 또는 외관으로 보든지 이 운동은 여성적 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다름질(달리기)을 잘 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겠으나 단거리는 그만두더라도 중거리부터는 다소간 정도의 문제라도 봅니다. 정도 문제는 조건으로 붙여서 한다면 여성적이 아닌 '점핑'이라도 과격하게 하지 않는 정도에서 좋을 줄 생각합니다.

이 기사는 달리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나 점프 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 무렵 조선 여자 선수들의 기량은 해마다 일취월장했다. 1927년 제5회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에서는 진명여고가 두각을 나타냈다. 김두임이 단거리(50m, 100m, 4×200m 릴레이) 3종목에서 1위를 했

다. 200m에서는 경성여고의 천봉순이 33초 4로 1위를 했다. 당시 신문 보도를 보면 초등여학생부와 중등여학생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종목마다 조선과 일본의 기록을 비교해 놓은 것이 흥미롭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인의 기록은 일본인에 비해 한참 뒤져 있었다.

1928년 제6회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 육상경기는 진명과 경성의 대결 양상이었다. 진명은 박필순이 멀리뛰기에서 4m 15, 세단뛰기에서 8m 99로 1위를 했다. 경성여고는 1927년에 이어 천봉순이 200m(32초 2)에서 1위를 했으나 4×100m, 4×200m 릴레이에서 모두 진명에게 1위를 내주고 2위를 했다.

1929년 제7회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는 신기록이 속출하는 한편, 평양여고보의 약진이 단연 화제였다. 평양여고보는 단거리에서 1,2,3위를 휩쓸었다. 그중 현금녀는 50m 7초 4와 100m 14초 2, 김현숙은 200m 31초 5, 박정신 높이뛰기 4m 10, 임성숙 세단뛰기 9m 27 등 1위가 모두 조선신기록이었다. 이 무렵부터 조선 선수와 일본 선수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고 일주일 뒤 열린 제5회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는 일부 종목에서 조선 선수들이 일본 선수의 기록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1920년대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신문사 및 단체들이 주최하는 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각 학교마다 엘리트 선수의 양성과 대회 참가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중 매년 10월 중순 무렵 열린 조선신궁경기대회 여자부 경기는 10월 초에 열리는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가며 대회 새로운 스타를 배출했다.

1929년 제5회 조선신궁경기대회까지는 여자부 경기를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그러나 경기 기록을 보면 기량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조선 여자들의 기록이 앞서기도 했다. 100m에서 조경순이 14초 2로 일본의 단거리 대표주자인 후카보리深堀의 기록 14초 3을 앞질렀다. 멀리뛰기에서는 후카보리가 4m 63으로 4m 14를 기록한 조경순을 앞질렀다. 이 대회에서 조

경순은 3관왕에 올랐다.

현금녀와 평양여고보의 맹활약

1930년은 평양여고보와 현금녀의 해였다. 1930년 제8회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는 조선인, 일본인을 가리지 않고 함께 경합을 벌인 첫 대회였다. 여기서 평양여고보는 200m 릴레이, 멀리뛰기, 높이뛰기, 세단뛰기에서 모두 조선신기록을 작성했다. 현금녀는 50m 7초 2, 100m 13초 52, 200m와 4×100m 릴레이에서 모두 1위를 했고, 박정신은 멀리뛰기 4m 66, 임성숙은 높이뛰기 1m 25로 조선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했다. 평양여고는 기세를 몰아 2주 후 열린 1930년 제6회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도 맹활약을 했다. 특히 이 대회부터 신궁경기 도 여자부가 조선인과 일본인 구분 없이 진행되었다. 현금녀는 50m 예선에서 6초 9로 아시아신기록을 세웠고, 100m에서는 13초 3으로 또다시 조선신기록을 세웠다. 4×100m 릴레이에서는 평양여고보팀(김명수·길영덕·김덕실·현금녀)이 55초 4로 조선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높이뛰기에서도 평양여고보의 박정신이 1m 30으로 1위, 같은 학교의 임성숙이 2위를 했다.

1931년에도 평양여고보가 발군의 실력으로 여성 육상경기를 휩쓸었다. 10월 초 열린 제9회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에서 현금녀는 50m 6초 9, 100m 13초 8로 1위를 했다. 두 종목 2위도 모두 평양여고의 차지였다. 평양여고는 200m·400m 릴레이에서 모두 1위를 했고, 박정신은 높이뛰기 1m 26, 강복신은 멀리뛰기 4m 40으로 1위를 했다. 200m에서는 경성여고의 강신복이 29초 3으로 조선신기록을 세웠다.

1931년 제7회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는 50m 현금녀·김명수 7초 1, 100m 현금녀 13초 7, 4×100m 릴레이 평양여고보팀(강복신·현금녀·김명수·이영덕) 55초 4로 각각 1위를 했다. 멀리뛰기에서도 전년도에 이어 박정신이 4m 50



▲ 1932년 제7회 조선신궁경기대회에 참가한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 육상경기부. 동아일보 1932년 10월 18일자 게재 사진.
▼ 1939년 12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손기정·강복신의 결혼식. 동아일보 1939년 12월 23일자 게재 사진.

로 1위를 했고 포환던지기에서는 김덕실이 7m 95로 1위를 했다. 현금녀와 김명수는 그해 메이지신궁대회 파견선수로 선발되었다.

1931년 10월 제1회 관서체육대회에서도 평양여고보가 눈부신 전적을 이뤘다. 현금녀가 50m 7초 1, 100m 13초 7, 4×100m 릴레이 55초 4로 3관왕이 됐다. 박정신은 멀리뛰기 4m 50에서 1위, 높이뛰기 1m 25로 2위를 했고, 김덕실이 포환던지기에서 7m 95로 1위를 했다.

1932년 제10회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에서 평양여고는 주전 현금녀의 활약

속에 강복신, 전덕실, 임성숙 등이 가세해 더욱 강해졌다. 현금녀는 50m 7초 1, 100m 13초 7, 강복신 200m 28초 6으로 조선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했고 현금녀·강복신·전덕실·길영덕이 뒀던 4×50m 릴레이에서 27초 5의 조선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4×100m 릴레이에서는 길영덕 대신 노용섭이 뛰어 55초 2초 조선신기록을 수립했고, 4×200m 릴레이에서는 강복신·노용섭·길영덕·현금녀 조가 1분 57초 6 조선신기록으로 1위를 했다. 현금녀는 릴레이에서 늘 마지막 주자로 뛰었다.

1932년 제8회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도 현금녀와 평양여고보의 종횡무진 신기록 돌파가 이어졌다. 현금녀는 50m 예선에서 6초 8로 조선신기록을 세우더니 결선에서 6초 7로 다시 자신의 기록을 깨뜨렸다. 100m에서는 예선에서 13초 1로 역시 조선신기록을 작성했고, 결선에서는 13초 2로 우승했다. 200m에서는 같은 평양여고보의 강복신이 예선 28초 1, 결선 28초로 연거푸 조선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했다. 4×100m 릴레이 우승도 당연히 평양여고보팀의 차지였다. 강복신·노용섭·길영덕·현금녀로 이어진 제주팀은 54초 2의 조선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했다. 포환던지기에서도 평양여고보의 김덕실이 8m 59로 1위를 했다.

1932년 제8회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도 평양여고보의 활약이 계속되었다. 현금녀가 50m 6초 7, 100m 13초 2에서 모두 조선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했다. 강복신은 200m 28초로 1위, 멀리뛰기에서도 4m 39로 1위를 했다. 당시 멀리뛰기는 임성숙, 김영수, 이의재 등 2,3,4위가 모두 조선신기록이었다. 또 강복신·노용섭·길영덕·현금녀가 뒀던 평양여고팀은 4×100m 릴레이에서 54초 2로 조선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했고, 강복신은 멀리뛰기에서 4m 89로 1위를 했다. 김덕실은 포환던지기에서 8m 59로 1위를 했다.

날개로는 안창남, 수레로는 엄복동, 다리로는 현금녀

당시 현금녀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날개로는 안창남, 수레로는 엄복동, 다리로는 현금녀'라는 유행어다. 다음은 이규태 칼럼 '북녀北女'의 내용 중 일부다.

일제 때 '날개로는 안창남, 수레로는 엄복동, 다리로는 현금녀'라는 말이 노래가 되어 유행했었다. 비행사로서 안창남, 자전거 선수로서 엄복동, 단거리 선수로 현금녀가 억눌렸던 민족 감정과 어우러져 영웅으로서 인기몰이를 했었다. 평양여고보 학생이던 북녀北女 현금녀는 30년대 초 50m, 100m, 200·400·800m 계주에서 매년 신기록을 깬기에 '평양 여감사'라는 별칭을 얻었었다. 광복 후까지도 육상경기 선수들은 수건을 입에 물고 달리는 것이 상식이 돼 있었는데 현금녀가 그 뿌리다. '두 어깨를 추켜들고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피에 굶주린 사자처럼 흰 수건 입에 악물고서'라는 그녀의 스타트 묘사에서 미루어 알 수가 있다.

현금녀뿐 아니라 200m의 강복신이며, 멀리뛰기·높이뛰기의 박정신, 세단뛰기의 임성숙, 포환던지기에서 김덕보, 창던지기에서 이추자, 5종경기에서 이명희, 계주에서 김명수·길영덕·김현숙 등 평양·사리원·해주 등지 출신의 북녀들이 육상경기를 누볐었다. ⁰²⁰

1933년 제11회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에 경성사범의 현계숙이라는 새로운 이

⁰²⁰ 조선일보 2002년 9월 29일자. 이규태 코너 '북녀'

름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평양여고보를 졸업한 현금녀가 경성사범에 진학한 뒤 이름을 계속으로 바꾼 것(동아일보 1933년 10월 3일자). 현계숙은 50m 6초 8, 100m 13초 1로 조선타이기록을 세우며 1위를 했는데, 100m 2위는 평양여고보 후배인 강복신이였다. 또 경성사범은 4×100m 릴레이에서 55초 5로 우승했는데, 평양여고보팀과 접전을 벌이다 마지막 주자인 현금녀가 후배 강복신을 간발의 차이로 앞질러 우승하자 운동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그러나 평양여고보는 강복신이 200m에서 27초 9로 조선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했고, 4×50m 릴레이에서도 27초 8로 1위를 하면서 종합 우승 4연패를 했다.

이어진 제9회 조선신궁경기대회 200m 예선에서 강복신이 27초 6으로 조선 신기록을 세우고 결선에서 28초 6으로 1위를 했다. 현계숙은 50m 7초 1, 100m 13초 5로 1위를 했지만 기록은 예전만 못했다. 800m에서 이화자가 3분 10초 2로 1위를 했다. 무엇보다 멀리뛰기에서 진명의 이의재가 4m 92로 조선신기록을 작성한 것이 이 대회의 하이라이트였다.

1934년 초 로마 교황 피오 11세가 가톨릭 교단에 여자답지 않은 운동경기를 금하는 포고령을 내리자,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이에 호응하여 여자파시스트연맹에게 여자답지 않은 운동 연습이나 올림픽과 같은 경기대회에 참가를 금지했다. 그러나 거꾸로 가는 세계무대와 달리 조선 여자 선수들의 기량은 날로 성장했고 육상경기대회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1934년 제12회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에서는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평양여고보가 경성제2고녀에게 밀려 우승을 내주는 이변이 일어났다. 100m에서 제2고녀의 마쓰모토가 14초 2로 1위, 진명의 이의재가 14초 5로 2위, 평양여고보의 정인애는 3위에 그쳤다. 200m에서 평양여고보 강복신이 29초 5로 1위를 했지만 여타 종목에서 대부분 제2고녀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고, 이의재라는 스타를 앞세운 진명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이의재는 멀리뛰기에서 4m 64로 1위를 했으나 기록 경신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며칠 뒤 이의재는 제10회 조선신궁경기대회 멀리뛰기에서 5m 02로 또다시 조선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했다. 이 대회에서 평양여고보의 정인에는 100m에서 13초 3, 80m 허들에서 14초 2로 각각 1위를 했다.

1935년 제13회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 일반부는 경성여자사범의 독무대였다. 경성여자사범의 김길덕이 60m 9초 1, 100m 14초 9, 200m 32초 9에서 모두 1위를 했을 뿐 아니라 2,3위도 모두 경성 선수들이었다. 4×50m 릴레이 29초, 4×100m 릴레이 59초로 모두 경성이 1위를 했다. 필드 경기에서도 경성의 활약이 이어졌다. 장정애는 멀리뛰기 4m 47, 높이뛰기 1m 25의 기록으로 각각 1위를 했고, 황완주는 원반던지기 22m 16과 포환던지기 7m 50으로 각각 1위를 했다.

1935년 제11회 조선신궁경기대회 여자부에서는 사리원 출신 이추자가 창던지기에서 26m 02의 기록으로 1위를 했다. 원반던지기에서 경성여자사범의 황완주는 27m 45로 1위를 했고 이추자는 25m 01로 2위에 그쳤으나, 둘 다 조선신기록이었다. 평양여고보의 김학실은 400m 준결승에서 69초 4로 조선신기록을 세웠다.

1936년 제12회 조선신궁대회에서는 60m에서 진명여학교의 이효숙이 8초 4로 1위를 했고, 진명팀은 4×100m 릴레이에서 2위를 했다.

이추자는 1937년부터 경성여자사범 소속으로 뛰어 제15회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 일반부 창던지기에서 24m 60, 포환던지기 8m 84, 5종경기에서 각각 1위를 했다. 이 대회에서 경성여자사범의 활약이 두드러져서 박옥섭이 100m 15초 5, 60m 9초 2로 1위를 하고, 최희모가 200m 32초 22, 김학실이 멀리뛰기 4m 59와 400m 1분 15초의 기록으로 각각 1위를 했다. 또 이추자·김학실·최희모·박옥섭이 함께 땀 경성여자사범 팀은 4×50m, 4×100m 릴레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1937년 제13회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 김학실은 200m를 26초 6으로 주파해 1위를 했으나 이추자는 5종경기에서 3위에 그쳤다.

1938년 제16회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에서 명성여학교의 정임순이 60m 9초

와 100m 14초 5로 2관왕이 됐고, 경성여자사범의 최희모가 200m 32초의 기록으로 1위를 했다. 1938년 제14회 조선신궁경기대회 겸 제7회 전조선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해주의 이명희가 5종경기에서 100점의 조선신기록으로 우승했다. 그 밖에 100m 정임순 14초 5, 200m 염영순 29초 1, 400m 유근희 1분 10초, 멀리뛰기 김기인 4m 78, 포환던지기 박남옥 8m 46의 기록으로 각각 1위를 했다.

1939년 제15회 조선신궁경기대회 포환던지기에서 박남옥 8m 71, 200m 김경남 29초 4, 80m 장애물 정경남 14초 2, 4×100m 릴레이 해주옥정고녀팀 56초, 4×50m 릴레이 동덕여고보팀 27초 6, 5종경기에서 이명희가 91점으로 각각 1위를 했다.

한편 평양여고보의 강복신은 도쿄 니카이도二階堂 여자체육전문학교에 진학해 졸업 후 동덕고녀에서 교편을 잡다가 1939년 24세에 마라톤 영웅 손기정과 결혼했다. 두 육상경기 스타의 결혼 소식은 전국적인 화제여서 당시 신문들이 일제히 결혼 소식을 전하고 당일 결혼식 사진까지 게재했다.

여자 100m 13초대 진입

192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여자 육상경기는 1930년대에 수많은 신기록을 작성하며 일본 기록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100m는 현금녀에 의해 13초대에 진입했고, 200m는 1927년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에서 경성여고의 천봉순이 33초 4의 첫 기록을 작성한 이래 1931년 경성여고의 강신복이 29초 3으로 30초의 벽을 깼다. 이 기록은 이듬해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 평양여고 강복신이 28초로 들어오면서 깨졌다.

여자 4×100m 릴레이에서는 진명여고와 평양여고보팀이 강했다. 특히 평양여고보는 1927년 진명이 세운 1분 4초 대 기록을 5년에 거쳐 10초나 줄여 1932년 제8회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는 54초 2까지 기록을 앞당겼다. 여자 400m

첫 한국기록은 1935년 10월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에서 동덕여고보의 허국이 세운 1분 12초 3이다.

일제 강점기에 여자 800m 경기가 치러진 것은 1933년 조선신궁경기대회 한 차례뿐이었다. 기록은 대구여고의 이화자가 세운 3분 10초. 이후 여자 800m는 광복 이후에도 치러지지 않다가 1960년대 들어서야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⁰²¹

1962년 4월 21일 대한육상경기연맹 주최 제3회 서울시남녀중고교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서 진명여고의 한명희가 여자 800m에서 2분 25초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는데, 이는 3월 18일 자신이 세운 2분 28초를 한 달 만에 3초나 단축한 것이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초까지 한국 여자 육상경기에서 정임순이 대활약을 했다. 정임순은 1940년 10월 일본선수권대회 예선 멀리뛰기에서 5m 20을 기록했는데, 이는 1962년 6월 자카르타 아시아경기대회 최종 선발전에서 김춘자가 5m 40을 기록할 때까지 22년 동안이나 깨지지 않았다. 정임순은 높이뛰기에서도 1941년 1m 43, 1948년 1m 46으로 두 차례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1962년 4월 21일 대한육상경기연맹 주최 제3회 서울시남녀중고교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서 진명여고의 안국희가 1m 46으로 타이 기록을 세울 때까지 유지되었다. 100m에서도 정임순은 1941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2회 메이지신궁대회에서 13초로 예선을 통과하고(매일신보 1941년 11월 2일자), 결선에서 13초 1로 우승까지 했다(매일신보 1941년 11월 3일자). 그리고 1941년 12월 일본육상경기연맹이 발표한 육상경기 10걸을 보면 여자 100m에서 12초 8을 기록한 정임순이 1위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이었다(매일신보 1941년 12월 27일자). 정임

⁰²¹ 고두현, 한국 육상의 발자취, 한국육상진흥회, 1998년, p12.

⁰²² 인터뷰 365(interview365.com) 2008년 9월 24일 : 두산백과 등 참조.

포환던지기 선수 출신 첫 여성 영화감독 박남옥



일제강점기 마라톤을 비롯한 우리 육상경기가 전성기를 구가할 무렵, 여자 육상경기계에도 걸출한 스타가 있었다. 그 선수가 훗날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으로 이름을 올린 박남옥이다.⁰²²

1923년 대구 근처 하양 마을에서 부유한 집안의 10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난 박남옥은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의 이미지를 거부한 소녀였다. 공부하는 틈틈이 세계문학전집을 읽었고 영화잡지도 접했다.

박남옥은 운동에도 소질을 보여 경북고등여학교(현 경북여고) 재학 시절 포환던지기 선수로 이름을 떨치며 1939~1941년 3년 연속 전조선종합경기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그는 포환던지기뿐 아니라 단거리와 높이뛰기에도 재능을 보인 만능선수였다. 운동선수로 대성할 기미를 보인 박남옥은 여고를 마치고 일본 미술학교로 진학하려 했지만 엄격한 가정 탓에 1943년 이화여전 가정과로 진학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던 박남옥은 일요일만 되면 하루 종일 영화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히틀러의 명에 따라 만든 올림픽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올림피아'는 여성감독 레니 리펜슈탈(1902~2003)이 만든 것으로 올림픽 다큐 가운데 백미로 꼽힌다. 여 감독이 장대한 다큐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박남옥에겐 충격이었다.

1944년 결혼을 강요하는 집안 분위기에 맞서 이화여전을 중퇴한 그녀는 대구 매일신문사 기자가 됐다. 이 무렵 박남옥은 기자 생활을 하며 영화평을 썼다. 이후 1954년 7월부터 극작가인 남편이 쓴 시나리오로 영화 '미망인(未亡人)'을 촬영했다.

하지만 흥행에 실패해 며칠 만에 간판을 내려야 했다. 단 한 편의 영화만을 남기고 영화계에서 잊혀진 박남옥은 1997년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를 계기로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으로 재조명되었다.

순이 어느 대회에서 100m 12초 8을 기록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그가 조선 여자 선수 최초로 13초의 벽을 넘어선 것은 분명하다. 이 기록은 1964년 박희숙이 100m에서 12초 6을 끊을 때까지 깨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임순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여성계> 1956년 5월호에 실린 내용의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1940년 전후해서 이화고녀에 적을 두고 활약한 정 선수가 남긴 전적은 너무 눈부시고 아직도 이 정 선수의 단거리 기록을 깨뜨리는 선수가 나서지 못하고 있는 터이다. 앞서의 현 선수나 강 선수의 한국기록을 모두 깨뜨린 이 정 선수는 100m에 12초 8을 세웠는데 이 기록은 아직도 한국의 최고기록으로 살아 있는 것이다. 이화여자전문을 거쳐 대구 신명여고에 교편을 잡으면서도 육상경기에 정진하여 해방 후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 한국 대표 후보로 뽑혔으나 대회에까지는 가지 못하고 6·25사변 당시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⁰²²

<여성계>는 평양여고보의 강복신을 강복실로 오기하는 등 몇 군데 오류가 눈에 띄지만 정임순 선수가 런던 올림픽대회 파견선수 후보였다는 등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 의미가 있다. 1997년 발간된 <대구 신명여고 90년사>에 따르면 1948년 4월 29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 최종기록회에서 멀리뛰기에서 정임순이 1위, 100m에서 차금옥이 1등을 했다고 한다. 당시 정임순은 신명여고 체육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⁰²² 여성계, 제5호 제2호, 1956년 5월 p144~150; 한국여성의 일상문화 4-여가, 이화형 외, 국학자료원, 2005 p115~116 재인용.

‘올림픽’이라는 외국어 사용금지

1941년 일제가 ‘올림픽’이라는 외국어의 사용을 금지해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는 제19회 대회부터 조선여자종합체육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자 막을 내렸다. 그러나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신문사 및 단체들이 주최하는 여자 육상경기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각 학교는 엘리트 선수 양성과 대회 참가에 적극적이 되었다.

여성의 육상경기 참여가 활기를 띠자 1930년 조선여자체육장려회가 설립되었다. 경성부 내 각 여학교 체육 담당 교사와 체육계 유지들이 뜻을 모아 여자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1931년 첫 사업으로 여자체육장려 강연회를 열었다. 당시 ‘어린이사’ 주간인 방정환이 연사 중 한 명으로 나서 ‘조선여자와 체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것이 눈에 띈다. 1934년 동회는 조직을 개편하고 여학생 중심에서 일반 가정의 여성 중심으로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로 하고, 그해 제1회 전조선여자탁구대회를 열었다.

숙명여학교에서는 농구부 주장으로 활약한 고순례가 5, 6학년 때 육상경기선수로서도 발군의 기록을 남겼다. 그는 1929년 10월 1일 조선신문사 주최 제7회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에서 창던지기에서 3위, 이듬해인 1930년 10월 2일 제8회 대회에선 투구(공던지기) 경기에서 22m 66의 기록으로 1위를 했다.⁰²³

당시 숙명의 운동복을 보면 정구와 탁구 선수들은 허리띠가 있는 원피스 형식의 흰 유니폼을 입었다. 농구, 배구, 육상경기 선수들은 반팔의 흰 블라우스 그리고 무릎 위에도 고무줄을 넣어 잡아매 주름이 잡히는 검정색 ‘블루머’라는 팬츠를 입었다고 한다.⁰²⁴

⁰²³ 유민희 논문, 2002, p63~64.

⁰²⁴ 같은 논문, 유민희, p48.

세계 여자 육상경기의 역사



☞ 여자 마라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84년 LA 올림픽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딴 미국의 조안 베노이트 사무엘슨.

오늘날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에는 여자부가 있고 올림픽대회에서도 한 종목에 남녀부가 함께 치러지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여자 종목이 이렇게 발돋움하기까지는 오랜 기간 여성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자 육상경기는 1917년에 국가적인 수준의 조직을 갖췄다. 그러다 1921년 국제여자육상경기연맹(FSFI)이 영국,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의 주도로 결성됐다. 이후 1936년에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여자 육상경기를 관장하게 되면서 국제여자육상경기연맹은

해체됐다.

앞서 1928년 제9회 암스테르담 올림픽대회에서 육상경기가 여성에게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했다. 국제여자스포츠연맹이 집요하게 참가를 요청해 옴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여자 종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올림픽대회에 여자 100m, 800m, 4×100m 릴레이 레이스, 높이뛰기, 원반던지기 등 5개 종목이 신설돼 5개의 세계신기록이 작성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신체가 장거리에 부적합하다거나 자칫 자궁이 빠진다는 등의 이유로 장거리 레이스는 허용되지 않았다. 여성의 육상경기 참가를 반대한 캐나



☞ 2008년 베이징 올림픽대회 여자 7종경기의 마지막 종목인 800m 달리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온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다가 높이뛰기와 4×100m 릴레이 레이스에서 우승했다.⁰²⁵ 어쨌든 암스테르담 대회는 육상경기에 여성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

하지만 800m는 여성에게 너무 무리한 종목이라는 인상을 갖게 했다. 실제 경기에 참가한 몇 명의 선수가 실신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여자 육상경기 800m 종목은 1932~1956년까지 올림픽 무대에 서지 못했다. 여자 마라톤도 1984년 LA 올림픽대회 때부터 비로소 문이 열렸을 정도였다. 1897년 시작된 세계 최고 전통의 보스턴마라톤은 1972년에야 여성의 참가를 허용했다.

최근까지 올림픽대회의 육상경기 종목은 남자가 24개, 여자가 22개로 여성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기는 3000m 장애물과 50km 경보 단 2개였다. 그러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대회부터 3000m 장애물도 여자 육상경기의 공식 경기가 됐다. 이제 남자만의 경기는 50km 경보경기뿐이다.

⁰²⁵ 유귀훈, 마라톤(잘 먹고 잘사는 법8), 김영사, 2004년, Part6 여자 마라톤의 시작 중에서.